

GYEONGNAM MECENAT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_____ Vol.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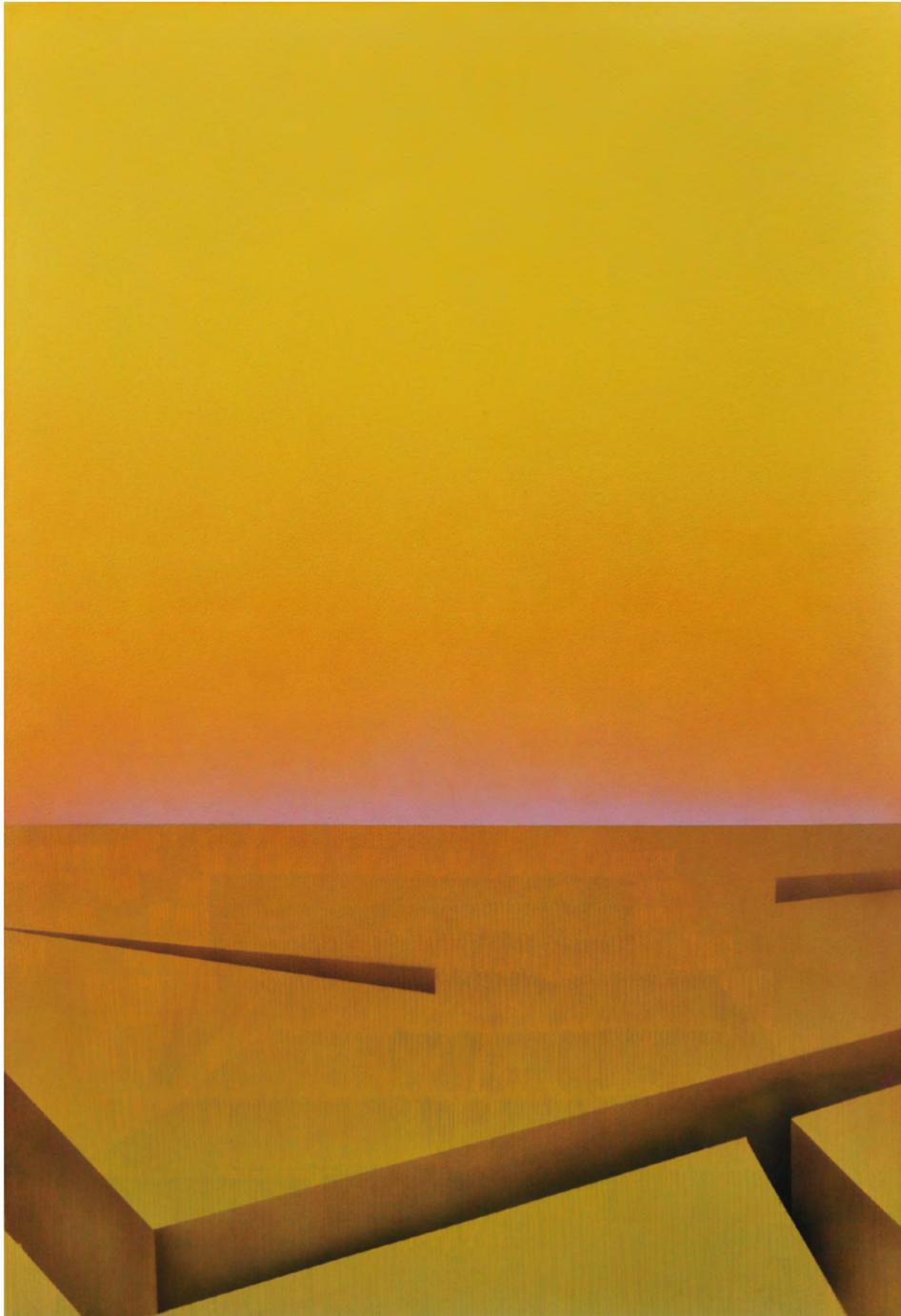
경남메세나협회
GYEONGNAM MECENAT ASSOCIATION

박도현 <풍경(경계 너머) #2>

캔버스에 아크릴, 2017

116.8 × 91cm

도시에서 지라난 작가는 도식화된 건물들의 모습이 익숙하다. 하지만 작가는 시골이나 자연의 모습을 그린다. 시골 풍경을 보노라면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인다. 그러나 이도 잠시, 경계 너머의 도시를 그리워하며 시골의 풍경 속에서 그 흔적을 찾아 표현하게 된다.



CONTENTS

스페셜인터뷰	02	최홍영 회장님 인터뷰
스페셜칼럼	06	ESG 경영의 본질과 ESG시대의 메세나 활동
	10	미술품 물납제와 문화예술품의 가치
스페셜테마	14	with 코로나를 준비하는 사람들 - 그럼에도 불구하고,무대는 멈추지 않는다
	18	Arts Keep Going
아름다운 동행	20	경남 오페라의 '처음'을 찾아가는 곳에 '경남오페라단'이 있었다 - 경남오페라단 30주년
	24	두 손 맞잡고 지역문화 지켜갑니다 - 산청양계영농조합법인 × 산청매구보존회
메세나인터뷰	28	이윤이 아닌 '흔적'을 남기는 사람 - 남명산업개발 이병열 회장
	32	도민이 함께 향유하는 경남 친화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위해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김영덕 원장
포토포엠	34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by 김관수 경남사진학술연구원장
문화공간	36	수국수국 꽃길 따라 소복소복 추억은 쌓이고 - 고성 그레이스 정원
	38	빛으로 수놓은 통영의 밤 - 빛의 정원, 디피랑
메세나소식	40	2021 경남메세나협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2021 경남메세나협회 임시이사회
	41	2021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실시
	42	에코시스템(주) - 경남메세나협회 '문화협력 협약' 체결
	43	(주)뉴성운관광 - 경남메세나협회 '교류협력 협약' 체결
		경남메세나협회, 지역 청소년들과 문화나눔
인조이컬처	44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모두를 위한 미술관
	46	탱고의 전설,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
	48	수필의 매력
	50	2021년 하반기 문화캘린더

맛있는 문화예술이 생활속에 스며드는 행복한 경남

지난 5월 12일 (사)경남메세나협회는 임시이사회를 통해 제9대 회장으로 최홍영 BNK경남은행장을 추대했다. 최홍영 신임 경남메세나협회장의 지역예술후원사업에 대한 포부와 견해를 들어본다.

Q1.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경남도민의 삶에 있어서 질적 가치와 행복지수를 가능케 하는 문화예술계의 버팀목 역할을 맡아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회장님의 각오를 여쭙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업과 예술을 이어주는 메세나협회 회장으로 선임되어 영광스럽고, 한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메세나협회는 지역문화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의 문화역량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입니다. 지역민들이 누리는 문화예술의 질적 가치 제고는 삶의 질 향상과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회장의 자리에 있는 동안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여 모든 지역민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 회장님께서 추구하시는 '행복한 경남'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호르몬이 생성되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지역의 문화예술이 맛있는 음식과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이 예술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한 '맛'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숙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가 되기도 합니다. 김치만 보더라도 서울지역은 새우젓의 담백한 맛에 길들여졌고 우리 경남은 곰삭은 멸치젓의 구수한 풍미에 이끌립니다. 이처럼 지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맛'있는 문화예술이 생활 속에 스며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경남"입니다.



최 홍 영

제9대 (사)경남메세나협회장
BNK경남은행장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예술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 사회의 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Q3. '행복'이라는 단어에서 우리의 지난 1년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기업도 예술도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인류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혼란과 공포 속에서 불안해하면서도 우연히 접한 시를 통해 위로 받고, 노랫말에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흑자는 고통 속에서 예술이 잉태된다고 말하나 봅니다.

6·25전쟁 당시 화가 유택렬, 이중섭, 최영립, 작곡가 조두남 등 당대 최고의 예술인들이 포화를 피해 마산과 통영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전쟁의 상처를 보듬었고 문화자산으로 우리 곁에 남아 여전히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예술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창작활동을 위한 후원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Q4. 그 예술 후원이라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메세나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동안 보아오신 협회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지역 최초로 설립된 메세나 단체입니다. 문화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해온 단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7년 창립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217개의 회원 기업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후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 대한민국 제1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 받기도 했지요. 더구나 작년에는 BNK경남은행과 (주)무학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림으로써 경남의 문화 인식 지표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타 지역에서 메세나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로 경남메세나협회의 사례입니다. 그런 만큼 더더욱 외형을 확장시키고 그에 걸맞은 내실을 다져야겠지요. 그래서 경남형 예술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Q5. 회장직을 수락하시면서도 '경남형 예술지원사업'을 언급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계층 간 문화지체를 줄이는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문화예술 지원과 향유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후원의 균등화가 아니라 후원의 차등화를 통한 기회의 균등을 이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문화소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예술인이 정착해서 활동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나눔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예술인과 후원자 간 연결은 물론 향유자와의 아름다운 동행까지 매개하는 메세나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창작 활동을 장려하여 향후 코로나19 추세 변화에도 창작자와 관객의 소통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뉴노멀 시대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1 ____ 2020년 BNK경남은행은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2 ____ BNK경남은행갤러리는 지역 예술인들과 관객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된다.
- 3 ____ BNK경남은행의 후원에 힘입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오페라단으로 성장한 경남오페라단의 공연 모습



마지막으로 경남 예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 회원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경남의 모범적인 메세나 기업들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후원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융성은 단기적 관심과 지원으로 결코 꽃피워낼 수 없습니다. 이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와 주신 메세나 기업인들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남형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남에 문화예술 후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6. 지금까지 주신 말씀 속에 향후 경남메세나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담겨있는 듯합니다. 끝으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저서『위험사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대인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과에 얽매이는 피로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고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그 불안감을 공감과 소통으로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회복탄력성 높은 공동체 구성이 필요한 지금, 우리는 그 해답을 문화예술의 가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공감과 소통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 예술에 대한 투자는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고향을 예방(藝鄉)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 경영의 본질과 ESG시대의 메세나 활동

안태혁

창원대학교 문화테크노학과 교수
창원문화재단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사)합포문화동인회 사무국장

최근 들어 기업경영 환경의 화두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ESG는 본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사실 ESG 경영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ESG 경영과 관련한 이슈와 내용들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논의되었고 연구되었다. 본 칼럼에서는 ESG 경영의 원형과 본질은 무엇이며, ESG 경영 시대의 메세나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해 본다.

ESG 경영의 배경

CSR과 CSV의 등장과 관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으로 표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이다. 1970년대에는 주로 공해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고, 1970년 중반부터 80년대에 걸쳐서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중점을 둔 논의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지구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환경경영에 초점이 맞춰졌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30년을 걸쳐 제기되어온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을 통합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하는 움직임으로부터 CSR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 및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 자원 고갈, 신흥국 및 도상국의 아동노동, 부패와 같은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 NGO, NPO, 미디어, 노동자단체 등이 연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대규모의 네거티브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동시에 스테이크 홀더(Stakeholder)의 영향력 또한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하버드대학 대학원의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 교수는 기업의 경쟁우위를 지향하는 경영 전략적 개념인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를 제창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가치는 ‘기업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상황을 개선해 나가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는 방침과 그 실천’이라고 정의한다. 즉 가치의 원칙을 사용하여 사회와 경제 양쪽 모두의 발전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처럼 CSV는 환경이나 사회적 문제를 경제활동의 외부요소로서 인식하던 기존의 경영전략론에 비해 내부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의 강화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SG투자의 진전

2000년대에 들어서서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투자의 평가 기준에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우 존스 지속가능 경영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와 같은 사회적책임투자 (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가 그 전형적인 사례다. 2000년에는 기관투자자가 연계하여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2003년에는 국제적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한 경우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협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6년에는 UN 사무총장의 제창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재무정보에 더해 ①환경(Environment), ②사회(Society), ③거버넌스(Governance)의 시점을 반영시키기 위한 지침인 '책임투자원칙(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이 제정되었다.

PRI의 6가지 원칙 중 ESG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한 투자 방법을 ESG 투자라고 일컫게 되었으며, 비재무적 요소인 ESG에 대한 대응을 평가하는 ESG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PRI에 서명한 기관투자자는 1,961기관에 달하고 이 기관들이 운용하는 자산은 총 82조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현황으로부터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과 가치 창조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ESG 정보와 같은 비재무적 정보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5년에는 UN에서 지속가능 개발목표인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되었다. 국제사회 전체가 2030년까지 달성할 빈곤 및 기아 문제, 에너지, 기후변동, 평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17개의 목표, 169개의 타겟이 설정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본업과 관계있는 SDGs의 목표와 타겟에 대한 대응 및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이 중요해지고 있다. 민간 기업이 과제 해결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SDGs와 ESG 개념이 중복되기도 한다.

ESG 경영과 메세나

ESG 경영의 특징과 과제

기업이 ESG 투자를 의식한 경영을 ESG 경영이며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ESG 경영의 대상은 투자가뿐만 아니라 종업원, 고객, 거래처, 지역사회 등과 같은 광범위한 스테이크홀더라고 할 수 있다.

- ① 환경(Environment) : 환경 분야와 관련한 평가 기준을 의미한다. 기후변동, 온실가스의 삭감, 자원 고갈 문제, 폐기물과 오염, 산림파괴, 생물 다양성 등에 대한 대응을 가리킨다.
- ② 사회(Society) : 기업이 비즈니스를 실천하는 공동체 및 지역사회(Community)에서 구축한 관계성과 평판에 관한 평가 기준을 의미한다. 노동조건, 지역사회, 종업원에 대한 대응을 가리키며 메세나 활동과 같은 사회공헌활동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 ③ 거버넌스(Governance) : 거버넌스를 위해 도입되는 사내 관행, 관리체제와 같은 사내 시스템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의미한다. 보수, 권리, 기업윤리, 이사회, 다양화와 구성, 정보공개, 리스크매니지먼트 등에 대한 대응을 가리킨다.

이처럼 ESG 경영은 비즈니스와 떼놓을 수 없는 것이며 ESG의 요소들은 다양한 스테이크홀더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ESG 경영의 본질은 무엇일까? ESG 경영은 사회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다양한 스테이크홀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업 경영의 올바른 자세를 의미한다. 반면 앞서 설명한 CSV는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 이슈를 통한 경영전략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른 차이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CSR이다. 다시 말하면 ESG와 CSV는 CSR의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나머지 부분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CSR=사회공헌활동’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CSR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경영학의 이론적 과제로서 경영학의 형성적 관점에서 보면 애초부터 원리적인 과제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CSR 관련 연구들은 기업의 불상사에 대한 대책 또는 그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술론들이 주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CSR은 사회공헌활동에 가깝다고 하는 단편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기업과 사회는 ESG 투자 및 ESG 경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본질과 지향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SG시대의 메세나

사회공헌활동(Philanthropy) 또한 CSR의 일부이자 ESG 경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공헌활동이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영자원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활동을 가리키는데, 기본적으로 ①금전적 기부활동과 ②제품, 시설, 인재 등을 활용한 비금전적 지원활동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기업이 본업과 관련한 기술력이나 마케팅 방법을 통해 전문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이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중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문화예술지원활동이 메세나 활동이다. 문화예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문화예술이 인간의 창의적 활동의 결과물이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서로 나누어 가는 과정의 연속물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 또한 끊임없이 형성돼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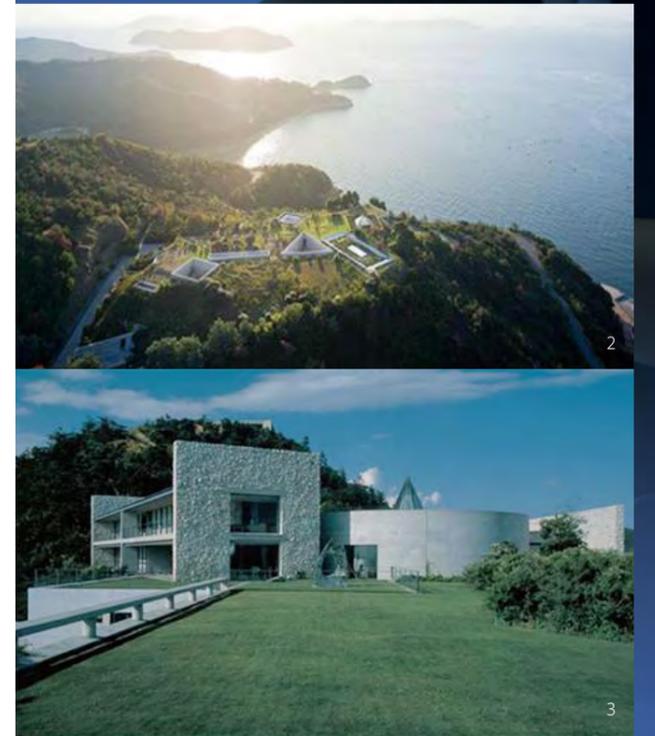
1 ___ 아사히맥주(주)의 특별협찬을 통해 개최된 SUMIDA ART ZOO 미술전(2016)
 2 ___ 베네세 아트 사이트 나오시마 프로젝트의 랜드마크인 지중미술관
 3 ___ 체류형 미술관 베네세 하우스

문화예술을 사회와 연결시키기 위한 활동인 ‘아웃리치(outreach)’라는 개념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 및 워크숍뿐만 아니라 미술 및 음악 이벤트를 문화시설 외부의 특정 장소에서 개최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창출하며 새로운 감상자를 육성시키는 활동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아사히맥주 주식회사(Asahi Breweries, Ltd.)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개최 및 협찬하고 있는 현대미술전 (Sumida River Art Project)에서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예술가들이 지역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고, 구청의 갤러리 공간에 전시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일반인들에게 때로는 난해하고 꺼려지는 현대미술을 제작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와의 협동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가볍고 편안하게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일본 나오시마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베네세 아트 사이트 나오시마 (Benesse Art Site Naoshima)’ 프로젝트 또한 처음부터 기업의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베네세 그룹(Benesse Corporation)의 장기적인 투자와 관심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침체된 섬이었던 나오시마의 지역 활성화와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시키는 원인에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있었다. 문화예술의 일상화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섬의 가옥 주변 및 골목길 등에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STANDARD’ 전시회를 통해 섬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일상적인 공간의 중요성과 생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체류형 미술관인 ‘베네세 하우스’외에는 일체 섬 어느 곳에서도 기업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서 프로젝트의 공공성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앞으로의 메세나 활동은 기업 중심의 일방적인 활동으로부터 문화예술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문화예술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 활동의 새로운 기반을 재구축해가는 방향 또한 포함된다. 문화예술 활동이란 본래 민간이 자발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메세나 활동에 파트너십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며

마지막으로 ESG 경영 시대의 메세나 활동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문화예술경영’의 지원과 관심이다. 문화 예술경영 분야에는 문화예술과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역할 외에 문화예술조직의 재원 조성, 인사, 회계, 마케팅 등과 같은 경영 실무의 역할도 포함된다. 지금까지의 메세나 활동은 문화예술 그 자체에 대한 지원과 활동의 확대에는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기업의 주 특기인 경영실무 능력을 활용한 실무적 지원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문화예술조직의 경영자들이 일반적인 경영 지식과 기술들을 해당 조직의 특성에 맞게 적용시키고 개발하여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물론 이러한 것이 기업 메세나의 범위를 넘어선 과제일 수도 있겠지만 메세나 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실무적 매니지먼트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 또한 ESG 경영 시대의 메세나 활동에 바라는 점이다.

미술품 물납제와 문화예술품의 가치

정종효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문화예술품의 수난

문화예술품은 그 국가의 역사에 대한 근간을 반영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또한 그 맥을 자자손손 이어갈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중요한 유산으로 시간에 따라 그 가치를 산정할 수 없을 만큼 변화한다. 문화예술품의 소실과 유출로 인한 변화는 주로 전쟁사에서 크게 나타난다. 전쟁은 정치적 또는 권력에 대한 야욕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예술품에 대한 탐욕으로 이어져 약탈과 파괴가 동시에 자행되었었다. 이는 세계 주요 전쟁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폴레옹(Napoleon)이 이탈리아를 정복하고 그 문화와 예술을 약탈해 프랑스의 박물관을 채운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는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지배국의 미술품을 약탈하기 위한 전담 부대까지 편성했다고 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조선반도 침범과 문화예술품 약탈에 그치지 않고 도공을 무더기로 일본으로 끌고 가 예술품을 생산하게 할 만큼 예술품에 대한 탐욕이 강했던 인물이다. 이렇듯 세계사의 전쟁기에 문화예술품은 주도자에 의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착취가 자행되었다. 동시대 국제사회의 현상은 경제를 중심으로 자국주의 중심으로 변화하고 정보 공유체계가 격변기를 맞이하고 과거사의 불합리함을 보상받고 착취당한 문화예술품 환수를 통해 자존심을 만회하려는 움직임들이 일고 있다.

한국의 문화예술품 해외 유출은 타 국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 61,409점, 미국 27,726점, 중국 3,981점, 영국 3,628점, 러시아 2,693점, 독일 2,260점, 프랑스 2,093점, 덴마크 1,278점, 카자흐스탄 1,024점, 오스트리아 741점 등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떠돌고 있는 문화예술품은 세계 20여 개국에 걸쳐 총 7만 5,000점을 넘어선다. 역사적 자료를 더 면밀히 분석하고 취합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수치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공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기증할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주된 원인이다.

그 수난 역시 역사적으로 크게 몇몇 시점을 짚어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00년을 전후로 한반도의 문화예술품의 착취는 이미 시작되었고,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국가로 문화예술품이 유출되면서 역사상 우리 문화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암울한 시기였다. 1866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하고 있던 고서들을 프랑스의 강압적인 약탈로 인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기이다. 수많은 문화예술품이 전쟁기를 틈타 해외로부터 유입된 외국인들에 의해 약탈과 불법 유출이 빈번했다. 더구나 소실과 파괴가 많아 복원이 불가능한 문화예술품이 많았다. 또 다른 사례는 불법 도굴과 밀거래를 통한 유출이다. 근대사를 벗어나고 산업의 고도화 시기에 들어서면서 문화예술품에 대한 가치 평가가 높아지고 이를 악용한 불법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려는 행위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밀반출되는 현상들이 성행했다. 불안정한 정부의 체계 속에 문화예술품 관리의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았던 허술함으로 문화예술품의 피해는 현재에 이르러 국민의 몫으로 남은 셈이다. 이러한 우리 문화재의 역사는 강제 착취, 불법 도굴, 해외로의 밀반출, 서양 외교관들에 의한 유물 반출, 개인 수집가들에 의한 유물 수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실과 상처를 받아 왔다. 결과적으로 몽유도원도, 조선왕조실록, 목란석첩, 귀거래도, 견감형동기, 금동인장, 화각합죽선, 동판 금강야차명왕상, 수월관음도, 직지심체요절 등 주옥과도 같은 보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떠돌고 있다.

근래에 이르러서도 문화예술품에서 위태했던 두 가지 이슈를 떠올려볼 수 있다. 지난해 5월 간송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간송문화재단이 국보급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놓는 일이 있었다. 간송미술관은 국공립미술관에서 소장하지 못하는 한국 전통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특화된 사립미술관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미술관을 개방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간송 전형필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작품들에는 주로 고서화를 중심으로 한 보물급의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그런 간송문화재단이 2점의 보물을 경매에 내놓았다는 사실은 미술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간송 전형필의 장남인 전성우 전 재단이사장이 사망하고 상속세 등 운영을 위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후 상속세가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점은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게 되어 유출은 막을 수 있었고, 물납제는 10여 년 만에 다시 공론화되었다.

최근의 최대 이슈는 당연히 ‘이건희 컬렉션’이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수집한 고려불화, 이중섭의 ‘황소’, 정선의 ‘인왕제색도’ 그리고 한국의 공립미술관에서는 엄두도 못 내던 피카소와 모네의 작품을 비롯한 2만 3천여 점의 미술품과 도서들을 국가에 기증한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 작품 약 9,000여점에 비하면 기증되는 이건희 컬렉션의 작품은 약 세 배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이다. 감정기관에 공식 의뢰해 산출된 기증품의 감정가액은 총 2조 5천억에서 3조 원의 가치로 평가되었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무가지보(無價之寶)’ 즉, 가격을 따질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엄청난 문화예술품을 한 번에 확보했다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국민이 향유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또 자원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건희 컬렉션은 유족들이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기에 고스란히 정부의 안정적인 시스템 안에서 관리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미술품 물납제 법제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당연히 이를 계기로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사안도 다시 대두되었다. 물납제의 목적은 유출되는 문화예술품을 막고 국가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역사의 흔적을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물납제도와 기증에 관한 혜택과 시스템은 문화예술의 강국이라고 불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다.

그들은 왜 문화예술 강국인가

문화예술품에 대한 물납제도가 최초로 만들어진 국가는 영국으로 1896년에 법제화되었다. 조세 납부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속세 납부의 경우에만 물납제를 인정한 것이다. 국가적, 예술적, 역사적, 과학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뛰어난 문화재에 한해 물납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경제적 가치 평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으로 평가해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술관 박물관에 문화예술품을 기증할 경우 세금의 일정 금액을 감면해 주는 이른바 세제혜택도 적용하고 있어 미술관과 박물관이 예술품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국은 재무장관이 물납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 승인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1968년 대물변제 제도를 도입하고 상속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 받도록 하고 있다. 예술작품, 서적, 컬렉션 항목 또는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서로 지불할 수 있게 하고 상속세액이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 문화재 물납제도 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결과에 따라 문화부와 예산부 등 관련 기관이 승인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문화통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소 복잡한 단계를 거쳐지는 시스템이다. 프랑스 제도의 장점이라면 제한적이지만 생존 작가의 미술품 등도 문화재 물납제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소장품들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도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진적으로 이미 물납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은 국세청에서 받아야 하고 승인될 경우 현금 대신 문화재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물론 현금 납부 우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동산과 유가증권도 물납제가 적용되며, 상속세 외에도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현금 대신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경우 문화재로 납부가 가능하다. 독일은 국외에서도 상속가액을 초과하는 미술품 등 문화재 물납제를 허가하고 있어 공공이익이 큰 문화재에 대해 현금 납부 우선 원칙의 예외로 적용하고 있다. 문화재 확보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품 확보가 우선

전술한 것처럼 물납제의 운영은 안정적으로 문화예술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물납제에 대한 필요성은 10년 전 제기되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하고 아직 표류 중이다. 조세의 원칙과 부정적인 견해에 부딪혀 더 이상의 진척이 없었다. 조세의 원칙은 형평성이고 안정적인 조세 확보를 위한 규정이 다양화되어 있음은 분명하지만 물납제는 안정적인 조세의 원칙을 적용하지는 목적이 아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논해보자면, 문화예술품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그 첫 번째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문화예술품에 대한 공식적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물납제뿐만 아니라 기부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문화예술품을 더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물납으로 받은 문화예술품은 장기적으로 평가했을 때 당대에서 평가한 경제적 가치를 추월하고 그 경제적 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산업과 접목하는 문화예술품들은 또 다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인 입장은 당연히 조세제도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과 같이 공식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기에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금 회수에 대한 위험과 부담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대신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비과세를 적용한다든지,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기부제도를 강화한다면 물납제를 법제화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다.



1. 영국을 대표하는 내셔널 갤러리는 물납제를 통해 많은 작품을 소장하며 명성을 쌓았다.

현실화를 위한 제언

어떤 제도이든 일장일단과 찬반양론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한국의 문화예술품은 수난의 시대를 겪어왔고 아직도 거취를 찾지 못하는 불안정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갈망과 열망 뒤에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었던 문화예술품 보존의 허술함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현실이다. 물납제가 표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문화예술품의 손실과 유출은 이어지고 있다. 한번 해외로 유출된 문화예술품의 환수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실감했다. 시간과 경제와 에너지를 소모하고도 영원히 환수 불가능한 예술품들도 있으리라 본다.

물납제는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 확보의 관점이 아닌 문화예술품 관리의 장기적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미 정부에서는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위해 사전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할 면밀한 기준과 검토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예술적·학술적·공익적·과학적 측면에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위해 얼마나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 문화예술품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하고 세제혜택의 범위와 종류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다. 해외에서 환수해야 할 문화예술품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해 상속세에 국한하지 말고 이외의 증여세, 재산세, 양도세 등에도 확대하고 동시에 기부제도를 활성화시켜 문화예술품을 안정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과 같이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정부에서는 '미술진흥법'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국가 감정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술품의 진위와 가격평가를 위해 민간단체에서는 많은 아카이브를 확보한 곳도 있다. 이제는 민간의 자원과 기관의 시스템이 신뢰성으로 작동하고 공신력 있는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소규모 기부에 관한 면밀한 관심도 필요하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박물관 그리고 공공 미술관과 박물관에서는 작품과 유물을 기부받고 있다. 작가와 소장가로부터 크고 작은 규모의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예우와 관심은 기부와 기증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보편적 가치로 확대해 문화예술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거론되는 미술관은 수집 예산만으로 소장품이 확보되지 않는다. 기부문화와 제도의 보편화로 많은 컬렉터들이 세계적인 작품들이 미술관에 기부되고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만들어나가고 가치와 수준을 높이고 있다.

세계의 문화강국들은 경제적 자원으로 문화예술품을 활용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물납제를 도입하고 '내셔널 뮤지엄'을 만들어낸 영국, 피카소의 작품이 해외로 흩어지는 것을 막고 '국립 피카소 미술관'으로 완성시켰으며 루브르 박물관을 기부로 채우고 있는 프랑스, 스위스 컬렉터 티센 보르헤미자 백작의 작품을 유독해 만든 '티센 보르헤미자 미술관'은 마드리드에서 프라도미술관과 마주하고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을 보유한 스페인, 컬렉터의 이름으로 완성된 구겐하임 뮤지엄과 MoMA 그리고 휘트니 뮤지엄을 지닌 미국, 이들은 분명 문화예술의 대국으로 존재하고 문화예술품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문화예술품의 확보와 관리 그리고 활용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있어서 가능했던 결과이다.

한국의 국가지정문화재 4,900여건 중 절반 이상이 개인 소유이고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하면 씁쓸함이 더한다. 문화예술품은 현금과 비교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예술품의 가치 상승을 증명하는 문화선진국의 다양한 현상은 우리에게 암묵적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견희 컬렉션을 시작으로 또 다른 기증자에 대한 기대는 물납제 시스템이 현실화되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가치는 국민의 일상과 교육 그리고 경제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최대 수혜자는 국민과 후손이 될 것이다.

With

코로나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는 멈추지 않는다



윤연경 극단미소 사무국장

“저는 늘 하던 대로 무대 위에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던 대로 삶을 이어갑니다.”

이수진 창원문화재단 공연기획 담당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시듯,
예술도 일상처럼 자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민 경남예총 사무처장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공연장을 찾아보세요.
다른 곳보다 안전하고 좋답니다.”

강정아 앙상블 이랑 대표/공연기획자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처럼,
예술도 당연하게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박도현 경남미술청년작가회장/미술작가

“바이러스가 진화하듯 우리도 진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까지 조금만 더 힘내 보아요.”

코로나19가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지 오래, 그중에서도 문화예술 분야는 가장 먼저 문이 닫히고 지원이 끊어졌다. 하지만 전쟁 속에서도 예술이 멈추지 않았듯, 지금처럼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어도 무대가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문화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다.

기약 없이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with(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화예술의 어제와 내일이 이어지도록, 각 분야에서 묵묵히 오늘의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무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텅 빈 객석, 멈춰버린 무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멈춰버렸다. 객석은 텅 비었고, 무대 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좌절 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자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문화예술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배우민 —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문화예술 분야는 보통 초봄부터 본격적으로 공연이 시작되는데, 그때 코로나가 대규모로 터지면서 공연계가 큰 타격을 입었어요. 무대는 다 준비됐는데

공연장 문을 열 수는 없고,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주로 비대면으로 활동했어요.

이수진 — 창원문화재단의 경우에는 3·15아트센터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연장을 세 번 휴관했어요. 그때마다 준비한 기획 공연과 대관공연이 큰 타격을 입었죠. 공연예술은 지원사업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공연을 해서 실적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공예술극장이 문을 닫아버리니, 지역의 많은 예술단체들이 갈 곳이 없어서 힘들어 하셨어요.

강정아 —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장이 닫히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대관도 힘들었고 대관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정이 변경되면 실내악이나 앙상블은 그래도 괜찮는데, 오페라의 경우에는 오케스트라, 성악가, 무대 등 100명 넘게 움직여야 해서 스케줄 조정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윤연경 — 연극계도 좀 힘들긴 했어요. 연극제 앞두고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바람에 관객이 많이 줄기도 했고, 비대면으로 바꿔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지난해에는 공연을 조금씩이라도 하기는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가 더 힘들어요. 거창연극제도 며칠을 앞두고 취소가 됐거든요. 오랫동안 준비한 무대인데, 아쉬운 마음이 크죠.



“ 문화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으로
어려운 시기 이겨내야. ”

윤연경 — 얼마 전 통영연극축제에 갔더니 로비에서 프린지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우르르 둘러앉아 다 같이 즐기던 공연이었는데, 그날 보니 한 명만 앉혀놓고 인형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그 아이만 들을 수 있도록 한 사람만을 위한 공연을 하는 거죠. 줄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강정아 — 말씀 듣고 보니 그런 공연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면서 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민 — 저는 어느 전시에서 본 문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작가가 ‘예전에는 아티스트가 자신을 얼마나 표현하느냐가 가치의 기준이었다면, 시대가 이렇게 되고 보니 내 표현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더 중요하게 됐다’고 써놨더라고요. 저도 가끔 작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 곡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코로나가 안겨준 깨달음이지요.

위드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술활동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무렵, 예술계에서는 이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비대면 공연·전시 등을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그동안 해 왔던 비대면 예술활동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박도현 — 저도 작품 영상작업을 진행해본 적이 있어요.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어떤 업체가 있는지 정보가 전혀 없어서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영상촬영비라는 예산항목 자체가 없었으니까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많이 됐어요.

강정아 — 그렇게 되니 연주자들에게 가야할 예산이 영상촬영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했던 것 같아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박도현 — 미술 분야는 예전에 비해 전시가 확실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장르 특성상 큰 피해는 없는 편이에요. 다만 전시장 문을 열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해 넘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미술가들이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열의를 갖고 작품을 그리고 전시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풀이 꺾어버리니까 그만두는 미술가들이 많았어요.

강정아 — 공연을 앞두고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공연장만큼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마스크 쓰고 있고 정해진 자리에 한 칸 띄어서 앉았어요. 확진자가 늘 때마다 이렇게 안전한 공연장을 가장 먼저 닫으니, 늘 아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계속되어야 한다

끝을 알 수 없는 터널 속에도 문화예술은 한줄기 빛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삶이 계속되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이수진 — 작년에는 예정된 공연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벅찼어요. 비대면 공연도 하고 네이버와 제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무대를 볼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 공연을 아예 열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박도현 — 맞아요. 세상이 멈춰도 작품 활동까지 멈출 수는 없으니까, 작품 만드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전시도 해보고, SNS 통해서 홍보 방법도 다양하게 해 본 것 같아요.

윤연경 — 맞아요. 저희는 되도록 대면 공연을 하려고 했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연극은 현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관객 없는 무대에 서보니, 관객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가 정말 그립더라고요.

배우민 — 예총에서도 공연을 하나 앞두고 있는데 미뤄야 할지, 취소해야 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중에 비대면 무관중은 가장 후순위예요. 작년에 관객 없이 공연해 봤는데 정말 아무 감흥이 없다는 걸 다들 알게 된 거죠.

이수진 — 관객 여러분도 현장의 감동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를 통해 공공예술극장 방역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졌거든요.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안전하게 공연을 열어서 관객이 무대를 즐기고 현장에서 감동을 주고받는 예술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with 코로나 시대, 예술이 가야할 방향

지금 당장 코로나19가 사라지지는 않을 터, 그렇다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술이 가야할 방향은 무엇일까.

박도현 — 사실 예술이라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좋은 작품도 나오고 특별한 작품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많이 줄었어요. 이미 정상에 선 사람들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느낌이랄까,

가능성 있는 예술가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술가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윤연경 — 미술 분야도 그렇겠지만, 연극도 그래요. 그만두는 예술가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후배가 없어지는 걸 느껴요. 나중에 예술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걱정돼요.

강정아 — 예술이 먹고 사는 수단이 될 수 없으니 예술을 하기 위해 생업에 뛰어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무대에 서기 위해 평일에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요. 그럼에도 다들 무대를 놓지 않으려고 각자의 방법들을 치열하게 찾아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수진 — 앞으로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가 될 텐데, 그래도 예술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문화예술의 다양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예술단체와 협력해서 지역 축제나 연극제 등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예술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배우민 — 예전에는 관객이 많이 오는 공연이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많이 와서도 안 되고 많이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객을 고민하기 보다는 오히려 작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지만, 예술가 여러분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ith



“ 어둡고 긴 터널 지나,
다시 가득 찬 객석 볼 수 있기를... ”

Arts Keep Going

예술은 계속되어야 한다.

UNESCO 사무총장 오드레 아줄레는 코로나 위기에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통합시키는 예술의 힘이 인류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문화예술로 희망과 즐거움을 전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의 소식을 전한다.



사랑의 음악선물 테라스 음악회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7일, 창원시 북면 행복한요양병원에 음악 선물이 도착했다. 아토오페라앙상블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단절된 생활을 이어가는 요양병원 어르신들을 위하여 <테라스 음악회>를 개최한 것이다. 외출이 엄격히 제한된 어르신들을 배려해 병원 앞마당에 무대를 설치하였다. 어르신들은 무대 앞에 띄어 앉아서 또는 입원실 내 테라스를 통해 작은 음악회를 즐겼다. 순우리말로 '선물'이라는 뜻의 '아토'. 아토오페라앙상블이 전한 사랑의 음악 선물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었다.

무대에는 소프라노 이세진, 메조 소프라노 이은선, 테너 신현욱, 김정권이 올랐다. 이들은 '마중', '그리운 금강산', '신아리랑' 등 정다운 가곡의 선율로 음악회의 문을 열고, 이어 '사랑을 위하여', '행복을 주는 사람', '지금 이 순간' 등 귀에 익은 가요와 뮤지컬 넘버를 열창하며 지친 환우들과 의료진들에게 치유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했다.

예술활동 디지털화 사업 경남아트 온라인

경남의 문화예술 활동 소식을 모아 예술인과 관객을 이어주고 예술인 간의 네트워킹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이름하야 <경남아트 온라인(GAON : Gyeongnam Art ONline)>이다.

코로나19 이후, 삶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예술도 마찬가지다. 누구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지, 우리 동네에서 어떤 전시가 진행 중인지 인터넷 검색이나 SNS를 통해 접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비대면 생활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온라인 공연과 전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했다.

<경남 아트 온라인>은 개별 예술인·예술단체의 온라인 예술 활동을 한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온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전시, 축제 소식은 물론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검색하고 이들의 활동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다.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 정보통' 게시판도 눈에 띈다. 경남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공모사업과, 복지정책 및 문화예술 분야 채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사소한 정보도 놓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경남예총은 <경남 아트 온라인>을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판매 플랫폼도 구상 중이다. 모두에게 언제든지 닿을 수 있다는 온라인 특성을 활용하여 예술표현 방식을 확장하고, 도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는 뉴노멀 시대, 경남 예술의 중심축 자리 잡길 기대한다.



뜻깊은 동행 BNK경남은행 컬처챌린지

문화예술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재평가 되고 있는 분야인 동시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관객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필수인 공연예술의 경우,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BNK경남은행은 이와 같은 지역 공연예술인들의 고민에 공감하며 든든한 지원군을 배치했다. 사내 방송 전문 인력과 함께 비대면 공연 영상 제작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우리 지역 음악가들과 호흡을 맞추어 '컬처 챌린지'를 기획했다. 가야금, 피아노 포핸즈, 실내악 편성으로 연주하는 K-POP, 바이올린 선율이 돋보이는 감성발라드, 대금과 해금 등 국악기의 구슬픈 음색으로 재해석한 트롯, 색소폰으로 가요를 커버한 영상 등 대중적이면서도 색다른 구성의 연주 영상을 제작하고 BNK경남은행 공식 Youtube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영상들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동시에 지역 예술단체의 홍보마케팅에도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모바일 기기로 QR코드를 촬영하면
경남 아트 온라인 웹사이트
gaonline.kr로 연결됩니다.



YouTube
BNK 경남은행

BNK경남은행 유튜브 채널 구독후
컬처챌린지 검색
지역예술인들의 무대를 확인하세요.

01

경남오페라단
30주년
1991-2021

경남 전역에 울려 퍼진
오페라 아리아



경남 오페라의 '처음'을 찾아간 곳에 '경남오페라단'이 있었다

언제였던가, 성산아트홀에서 감동적인 오페라 한 편을 보고 공연장을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가까이에서 좋은 오페라를 즐길 수 있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작은 호기심으로 경남 오페라의 처음을 찾아 30년을 거슬러 올라갔더니, 그곳에서 경남오페라단을 만날 수 있었다. 문화예술 불모지에 오페라의 씨앗을 뿌리고 매년 좋은 무대로 경남 오페라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경남오페라단의 30년 발자취를 따라가 봤다.

막이 내리자 객석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연주자들이 무대를 내려갈 때까지 박수는 멈추지 않았다. 지역에서 열린 오페라에 이렇게 많은 관객이 찾아와 진심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오페라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온 경남오페라단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1991년, 문화예술 불모지였던 창원에서 경남오페라단이 문을 열었다. 여러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도 오페라는 인지도가 낮았고, 제대로 된 공연장도 없을뿐더러 오페라 공연 한번 열린 적이 없던 때였다. 하지만 오페라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오페라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을 일으켜 보자고 의기투합했다. 그렇게 경남오페라단이 뿌린 작은 씨앗은 어려운 시기마다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

경남오페라단, 열다

경남오페라단은 故 강영중 창원대 음악과 교수를 중심으로 뜻있는 지역 예술인들과 개인 후원자들이 힘을 모아 만든 순수 민간 예술단체다. 故 강 단장은 문화적 저변도, 무대도, 연주자도 부족한 창원에서 어렵사리 오페라단을 꾸려왔다. 연주자를 선발해 연습시키고 무대를 꾸미고 비용을 마련하는 모든 과정을 도맡아 하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다. 당시만 해도 문화예술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여서 관련 비용을 지원받는 데 큰 힘이 들었다. 하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무대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경남오페라단은 창단 이듬해인 1992년 창단기념으로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무대에 올렸다. 당시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공연을 선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한 것이다. 이후 <카르멘><리콜레토>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면서 처음에는 호기심에 공연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오페라를 알게 되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에 빠져들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더냐?

창단 후 좋은 오페라 무대를 펼쳐오던 경남오페라단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1997년 강 단장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혼자서 오페라단 운영은 물론이고 공연을 준비하고 무대에 올리는 모든 순간을 다 책임졌던 강 단장이 별세한 후, 아쉽게도 무대는 멈추고 말았다.

그동안 오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해 왔던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렸다. 하지만 경남오페라단이 멈춘 자리에 창원오페라단이 새롭게 창단하면서 첫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오페라에 목말랐던 시민들은 환호했지만, 경남오페라단의 재기를 기다렸던 후원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다.

1. 경남오페라단 G.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공연 모습



위기였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어김없이 꽃은 피어난다. 경남오페라단도 그렇다. 경남오페라단 후원자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의 노력으로 경남오페라단과 창원오페라단이 고영조 단장이 이끄는 통합 '경남오페라단'으로 재탄생했다. 2000년 가을 통합 기념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로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힘든 상황을 맞기도 했지만, 당시 개인 후원자 중 한 사람이었던 故 정찬희 단장이 경남오페라단을 새롭게 이끌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故 정 단장은 부임 당시 임의단체였던 경남오페라단을 사단법인화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준비 끝에 2001년 사단법인인 경남오페라단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체 협찬과 개인 후원자 모집을 통해 좋은 무대를 만들어 왔으며, 특히 경남은행과 매칭펀드를 맺으면서 20년 가까이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 경남오페라단이 앞으로 100년은 거뜰히 이어나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일이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순간이었다.

경남오페라단, 짓다

故 정 단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아 자금을 모았고, 덕분에 통합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 그때부터 故 정 단장은 경남오페라단을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서, 이후 20년간 경남오페라단을 국내 최고의 예술단체로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을 쏟았다.

경남오페라단은 사단법인이 된 후 경남의 오페라 수준을 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모범적인 예술단체로 발돋움했다. 2005년에는 창작오페라 <논개>를 위촉 작곡해 초연해 큰 박수를 받았으며 2007년에는 바로크 오페라 <오르페와 에우리디체>를 국내 초연했다. 2012년 <춘향>으로 제5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금상을 수상했고 2013년에는 <라 트라비아타>로 제6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제 경남오페라단은 경남을 넘어선 지 오래, 무엇보다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최고 수준의 오페라를 즐길 수 있게 만든 것은 경남오페라단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그동안 쌓아 놓은 경남 오페라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



1 ____ 경남오페라단의 지난 30년의 역사가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다.
 2 ____ 작곡부터 故정찬희 단장, 작곡가 이수인 테너 엄정행, 경남스틸(주)최충경 회장, 최회장은 경남오페라단 <이수인가곡의밤>을 꾸준히 후원하는 등 오페라단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다.
 3 ____ 경남오페라단의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수상내역

함께 역사를 일궈낸 든든한 동반자

경남오페라단이 지금껏 좋은 오페라를 무대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창단 당시 함께 뜻을 모았던 故강영중 교수, 지역예술인들과 창단 발기인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든든하게 후원하고 있는 최충경 경남스틸(주) 회장, 후원회장을 맡으며 힘을 보태고 있는 이상연 (주)경원코리아 회장 등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창단부터 지금까지 경남오페라단을 특별한 애정으로 후원하고 있는 최충경 회장은 “경남오페라단은 지역의 뜻있는 관계자들이 창단하여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예술단체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지역을 배경으로 한 창작 오페라 <논개>를 기획하는 등 지역 문화를 오페라로 재해석한 시도는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존감을 높여주었다.”고 전했다. 한편, “앞으로 지역 오페라 고정 동호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동시에 지역 신진 음악인들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주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예술단체가 되기를 바란다.”며 오페라단의 미래를 응원했다.

30년 역사 발판 삼아 더 높이, 더 멀리

지난 2019년 12월 정 단장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위기일 법도 했지만, 이번에는 굳건하게 쌓아 올린 30년의 역사가 있었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故 정 단장에 이어 노경오 이사장이 경남오페라단을 맡았고, 뒤이어 올 2월부터는 이용순 이사장이 새롭게 경남오페라단을 이끌게 됐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 쌓아 놓은 경남 오페라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30주년을 맞은 경남오페라단은 그동안의 역사를 발판삼아 무대를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제1회 창원신춘가곡제를 열어 앞으로 주기적인 공연을 펼쳐나갈 발판을 마련했다. 갈라콘서트 ‘아리아의 향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했고 최근에는 2021 경남성악가페스티벌과 경남오페라단 신인음악회를 열어 지역 예술인들과 신예 예술인들을 위한 무대를 활짝 열기도 했다.

경남오페라단은 오는 10월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30주년 기념공연 <라 트라비아타>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경남오페라단 30주년 기념 공연이 펼쳐지는 공연장에 축배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알프레도와 비올레타가 그랬던 것처럼, 그날만큼은 마음껏 축배를 건넬 수 있기를.

02

산청양계영농조합법인 X 산청매구보존회

문화를 보존하는 예술단체,
예술을 지원하는 기업



두 손 맞잡고 지역문화 지켜갑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는 요즘 세상에, 전통의 것을 지켜가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어려운 일을 10년 넘게 해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산청매구가 사라지지 않도록 단체를 만들고 꾸준한 연습과 공연으로 전통문화를 이어오고 있는 '산청매구보존회'와 지역문화에 관심을 갖고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산청양계영농조합법인'이 그 주인공이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산청 산골농장에서 10년의 세월에도 변함없이 서로에게 중심인 두 단체가 다시 손을 마주 잡았다.

단한 마음을 여는 산청매구보존회의 무대

산청 목면시배유지에서 열린 '2021 생생문화재 목화야 놀자' 행사장에 초등학생들이 찾아왔다. 산청매구보존회의 팽과리 소리에 맞춰 신명 나는 놀이 한 판이 펼쳐진다. 더운 날씨에 축 늘어졌던 몸이 절로 들썩이고, 깊은 곳에 숨겨왔던 흥이 살아난다. 풍물놀이와 버나 공연으로 흥을 돋우고, 학생들과 함께 버나 돌리기 체험을 하면서 우리 전통문화의 매력을 마음껏 뽐냈다.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은 오랜 코로나19로 지쳤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무대에 푹 빠져들었다.

산청매구보존회는 1996년 창립된 산청군 대표 풍물단체로 산청의 전통풍물인 산청매구를 보존하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회원들 40여 명이 자기 일을 하는 틈틈이 모여 연습을 하고, 가게 문을 닫고 나와 무대에 서면서 지역의 전통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있다.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우수상, 김해 가야문화축제 농악부문 대상, 진해군항제 타악부문 대상, 전국민속예술대회 수상 등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지난 2006년에는 일본에서 9박 10일간 순회공연을 펼치는 등 산청매구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산청매구보존회는 사라져가는 산청매구를 지켜나가는 한편, 공연이 있을 때마다 신명 나는 무대를 펼치며 지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를 기쁘게 하는 무대가 지금껏 계속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 무대 뒤에는 10년을 한결같이 후원해준 산청양계영농조합법인(이하 산골농장) 이상호 회장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다.

땅속의 보물을 캐내듯, 문화예술을 후원하다

산골농장 이상호 회장은 경남메세나협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왔다. 이 회장은 업무상 유럽에 출장 갈 일이 많았는데, 유럽의 다채로운 문화예술과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준 기업가의 활동을 눈여겨보면서 메세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다. 유럽 박물관을 다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과 그 예술가를 후원한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표기된 그림을 보고 '후원의 가치가 작품을 만든 사람의 가치보다 낮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와 같은 마음으로 예술가의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한다.

“땅속에 있는 보물도 누군가 캐내서 세상에 드러내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산청매구보존회도 그렇고 잊혀가는 독립운동가도 그렇고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도 그렇습니다. 땅속의 보물을 캐내듯,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지역예술가에게 작은 힘을 보태면서 메세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경남메세나협회 매칭펀드를 통해 산청매구보존회를 후원하는 한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여 년 전부터 산골농장에 장미를 심어 지역민들을 위한 장미축제를 열고 축제 현장에서 오케스트라와 풍물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지금은 축제를 열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산골농장 장미축제를 보러 전국에서 찾아와 길이 꽉 막힐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1. 산청매구보존회 공연 모습



지역의 특색을 가진 문화예술품을 모으고, 오랫동안 모아온 작품을 잘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는 산청산골박물관을 개관하기도 했다. 지상 3층 규모의 산청산골박물관에는 직접 수집한 골동품과 예술품 등 수천 점이 전시돼 있다. 박물관 옆으로는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쉬어갈 수 있는 산책 공간도 조성 중이다.

또 사단법인 진주목문화사랑방을 만들어 같은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과 지역문화를 공유하고 지역문화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 사업으로 파리장서 주역인 광종석 선생을 기리는 ‘파리장서 기념탑’을 세웠다. 이밖에 세계적 성악가 조수미 공연을 진주에서 열기도 하고 진주 출신 미술가 내고 박생광 선생을 기리는 전시도 펼쳤다. 이처럼 그는 지역의 숨은 역사와 문화, 예술을 땅속에서 캐내어 세상을 빛을 보게 만들면서 변함없이 메세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는 아름다운 동행

일찍부터 문화예술을 통한 나눔을 실천해 오던 이 회장은 경남메세나협회 창립 때부터 매칭펀드를 통해 진주지역의 오케스트라와 결연을 맺었다. 그러던 중 산청지역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 산청매구보존회를 눈여겨보았고, 이듬해부터 산청매구보존회와 결연을 시작해 지금까지 10년 넘게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산청매구보존회 김종완 회장은 이상호 회장의 지원이 ‘가뭄에 단비’ 같았다며 10년이 지난 지금도 첫 결연의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밝혔다.

“산청매구보존회는 사라져가는 산청매구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회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내서 연습도 하고 악기도 사고 공연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활동하던 도중 회장님의 도움으로 활동반경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두 단체가 손을 잡은 이후 산청매구보존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연간 3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자랑스러운 산청매구를 전국에 알리는 한편 지역에 행사가 열릴 때마다 앞장서서 무대를 열어주고 흥을 돋워준다. 이상호 회장은 산청매구보존회의 활동을 볼 때마다 후원하길 잘했다며 뿌듯함을 느낀다.

“산청매구보존회는 산청 전통 문화를 보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것을 보존해나가는 것 자체가 무척 중요한 일이고, 회원들 모두 산청매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롭습니다.”

산청매구보존회는 산골농장의 후원에 보답하고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산골농장에 기쁜 일이 있을 때면 언제든 달려가 공연을 하거나 일손을 돕는다. 장미축제 때는 공연은 물론 뒷정리까지 돕고, 김장을 할 때도 기꺼이 달려가 일손을 도왔다. 달걀 값이 폭락했을 때는 달걀사기 운동을 벌여 매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이런 마음이 이상호 회장에게도 전해졌기에 지금까지 좋은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상호 회장님이 하시는 문화예술 후원 활동 중 산청매구보존회와의 결연은 일부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 단체는 회장님의 지원이 전부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힘을 더 내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라져가는 것을 보존해나가는 것 자체가 무척 중요한 일이고, 회원들 모두 산청매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롭습니다”



1 ___ 산청매구보존회 공연 모습
2 & 3 ___ (좌) 산청양계영농조합법인 이상호 회장 / (우) 산청매구보존회 김종완 회장

메세나의 이름으로 봉사를 실천하다

산청매구보존회는 매칭펀드 지원금 대부분을 봉사활동에 쓰고 있다. 관내 노인요양원을 순회하며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흥겨운 공연을 펼치고, 위문품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며 즐거운 하루를 선물한다.

“메세나를 통해 저희가 받은 것에 우리의 정성을 더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미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공연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봉사활동 현장에는 산골농장 이상호 회장도 꼭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메세나 결연사업으로 이런 무대를 만들 수 있었다고 전하며 어르신들뿐 아니라 무대에 서는 회원들에게도 축하와 감사 인사를 잊지 않는다. 이상호 회장이 바쁜 일이 있어 참석이 힘들 때는 아들 이민희 대표가 대신 참석해 덕담을 나눈다. 그만큼 산청매구보존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다.

산청매구, 지금처럼 변함없이 보존되도록

누구 한 사람의 힘이 아니다. 두 단체가 힘을 모았기에 지금도 산청매구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문화가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은 이처럼 예술단체의 노력과 기업의 지원이 한데 어우러졌기 때문이리라.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메디치 가문이 예술가를 후원해 유럽 르네상스를 이끌었듯이, 산골농장의 지원으로 지역문화가 다시 생기를 찾아가고 있다. 이상호 회장이 기꺼이 메디치 가문이 되기를 자처하며 산청매구를 땅속에서 꺼내주었으니, 이제 스스로 갈고 닦아 더 빛날 일만 남았다.

산골농장과 산청매구보존회와의 아름다운 동행, 지난 10년이 그러했듯이 앞으로의 10년도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받으며 이 아름다운 동행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하여 먼 훗날 산청매구의 이름 옆에 ‘후원 산골농장’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함께 기록되고 기억되기를.

이윤이 아닌 ‘흔적’을 남기는 사람

남명산업개발 이병열 회장



“문화로 세상에 온기를 전하다”

‘남명’의 이름으로 종합건설업을 해 온 지난 30년 동안 이병열 회장은 이윤보다 더 가치 있는 흔적을 세상에 남기고 싶었다. 회색 시멘트 가득한 공간을 지으면서도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을 먼저 생각했고,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면서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노력했다. 30년을 한결같이 문화를 통한 나눔을 실천해 온 그가 이번에는 신사옥에 복합문화공간을 열어 지역 예술계에 인상적인 흔적을 남겼다.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일

지난 6월, 김해에 남명산업개발 신사옥 N스퀘어가 문을 열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즐기며, 이곳이 김해의 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이병열 회장의 배려가 가득 들어간 건물이다. 건물 외부에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조각가 김경민 작가의 조형물 ‘내 마음’이 시민들을 반기고 있다. 건물 외벽에는 영국의 빅 벤 못지않게 아름다운 대형 시계가 걸려 있다. 이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넘어서서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으로 거리를 비추며 김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N스퀘어의 특별함은 이것만이 아니다. 건물 9층에 가면 문화예술에 대한 이병열 회장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 남명아트홀과 남명갤러리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병열 회장은 오랫동안 건설업을 하면서 이윤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해 왔다. 바로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일이다. 이번 남명아트홀과 남명갤러리 개관은 그가 남기고 싶은 흔적을 위한 작은 과정이다. 이윤만을 추구했다면 결코 할 수 없었을 일, 오랫동안 메세나 활동을 하며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꿈꿔왔기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미래에 어떤 흔적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흔적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네요. 건축물 안에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서 가치를 향유하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 탄생

남명아트홀 입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넓고 쾌적한 분장실이다. 대형 공연장 못지않게 잘 갖춰진 분장실은 무대에 오르는 사람이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의 입장은 물론이고 무대에 서는 예술가의 마음까지 배려한 것이다. 공연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공연의 질이 높아지고, 공연의 질이 높아야 관객 만족도도 올라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분장실을 지나 아트홀로 들어서면 145석으로 정갈하게 꾸며진 소극장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는 연극, 콘서트, 오페라, 무용, 강연 등 다양한 무대가 가능하도록 최고 수준의 음향 시설과 무빙 조명, 다채로운 무대를 연출할 수 있는 고회도 LED 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고품질 카메라가 있어 공연 실황을 녹화할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도 가능하다.

- 1 __ 남명산업개발 이병열 회장
- 2 __ N스퀘어 전경
- 3 __ 남명복합문화센터 내 남명아트홀 공연장



남명아트홀 개관 기념으로 지난 6월 1일에는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성악과 국악 공연을 펼쳤고, 11일에는 ‘오페라 아리아의 밤’ 공연을 열어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성악가와 함께 즐거운 무대를 만들기도 했다.
“남명아트홀과 남명갤러리를 기획하면서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귀담아들었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트홀 옆에 마련된 남명갤러리는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전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남명갤러리 첫 전시는 김해미술협회 회원들의 전시로 꾸며졌고, 경남미술협회 회원들의 전시가 이어지며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역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선보이고, 좋은 공연을 가져와 무대에 올리기도 하면서 지역 예술인과 지역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1 ___ N스퀘어 도시형 정원 루프탑 '더 라우 가든'
- 2 ___ 남명복합문화센터 내 남명갤러리
- 3 ___ 남명아트홀 '그랜드 갈라 콘서트' 공연 모습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다

흔히 건축을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병열 회장은 벌써 30년 넘게 문화예술계에 종사해 온 예술인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가족과 친척 덕분에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예술가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메세나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그는 지난 2007년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창단할 때부터 상임이사를 맡으며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계속해왔다. 또 2012년부터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로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남명산업개발과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매칭펀드를 통해 인연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결연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사장을 맡고 있고 지금은 경남메세나협회 부회장으로서는 경남의 문화예술 부흥에 앞장서고 있다.

“민간 오케스트라를 경남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성장시켰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케스트라에서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남행복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국내외에서 음악가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의 흔적을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길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경남메세나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메세나가 꽃피울 수 있게 돕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그들이 꿈을 응원하고 있으며 대산미술관, 성주무용단, 가야오페라단 등 지역 예술단체의 활동도 적극 후원해왔다.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장학금 기탁 등 사회의 어려운 곳을 들여다보며 도움의 손길도 내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예술가들이 작품을 선보이고 관객들이 예술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제 이 공간에서 시민들은 감동을 주고 기쁨을 느끼며, 슬픔을 위로받고,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됐다. 그가 남긴 흔적들을 보니, 건물을 지어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문화로 흔적을 남겨 세상에 온기를 전하는 것이 더 뜻깊은 일임을 이제야 알 것 같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 운영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일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그는 기꺼이 앞장서서 그 길을 가려 한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명아트홀을 보신 많은 분들이 앞으로 회사에 직원을 위한 공간을 짓고,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짓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병열 회장은 공간을 짓는 사람이다. 그가 만든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각자의 몫이다. 그는 그 공간을 문화예술로 채우고 싶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문화로, 예술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지금껏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어려운 와중에도 메세나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다. 앞으로 그가 남긴 흔적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위해 함께 걸어주기를 바란다.

도민이 함께 향유하는 경남 친화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위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김영덕 원장



경남도지사는 지난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출신인 김영덕 씨를 신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원장은 문화콘텐츠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해 왔으며, 경남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과 콘텐츠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원장을 만나 앞으로 진흥원이 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Q1.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소감 및 포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대면 공연이나 행사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은 중앙정부 및 경남도와 협의해 신속한 특별예산 편성, 사업방식의 비대면 전환, 예술인 고용보험 조기정착 노력 등 예술인 복지 강화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문화예술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민들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삶에 힘이 되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절실하게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남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이 더욱 견고해지고 풍요로워지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Q2. 최근 콘텐츠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은 이웃사촌입니다. '문학이 영화와 드라마가 되기도 하고 '음악'이 음반과 콘서트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등 콘텐츠 산업 대부분이 문화예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의 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해 경남에 좋은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거나 창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장 규모를 키워나가는 동시에, 협소한 지역 콘텐츠 시장을 타 분야와 결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형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인프라와 프로덕션에 집중된 현재의 콘텐츠 산업 지원체계를 마케팅과 프로모션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인구, 소비 등 사회구조의 변화, 동남권 메가시티 등 대외환경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친화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지원체계도 확립해나갈 생각입니다.

Q3. 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경남을 위해 진흥원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치원부터 시니어까지 교육과정에 문화예술을 편입시키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이 일상과 함께한다면 문화예술을 보는 시선과 인식, 관점도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진흥원 차원에서는 지원사업을 통해 경남 친화적인 우수 콘텐츠나 문화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이 결과물이 도민 모두에게 널리 향유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시장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마케팅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컨설팅이나 판촉마케팅, 마켓참가 및 비즈니스 상담, 프로모션 등 마케팅 역량 강화에 집중해서 도민 여러분께 더 많은 문화예술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Q4.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적인 관점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흥원에서는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 활동이 활력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ESG 경영 차원에서 경남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남은 잠재력이 매우 큰 곳입니다. 특히 근현대사에서 문학, 무용, 음악, 미술 등 경남 출신 예술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아울러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훈풍이 불고 있어서 8백만 거대 시장 통합이 기대되는 만큼, 기업의 관심과 지원이 더해진다면 경남 문화예술이 경남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메세나 활동은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한국메세나협회 김희근 회장님은 인터뷰에서 "기업인들은 메세나를 포함한 사회공헌을 사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많은 기업이 경남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을 갖고 과감하게 투자해주셨으면 합니다.

Q5.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문화예술이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화가 급속도로 진행됐지만, 사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온라인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화, 언택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문화예술과 콘텐츠는 변화와 혁신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유통의 주도권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개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예술을 생산·유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예술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융합하면서 새롭게 재탄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부응하는 사업체계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진흥원은 앞으로 수요자 중심, 융합을 키워드로 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에서도 진흥원의 존재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진흥원에서는 도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것이 경남 문화예술의 질적·양적 발전의 큰 모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경남의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경남”

모든 것은 추억이 되기에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니 순간의 미련은
의미가 없을 수 밖에

작자미상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by 김관수 경남사진학술연구원장

수국수국 꽃길 따라 소복소복 추억은 쌓이고

초록 숲 사이 다채롭게 피어난 수국의 계절
고성 그레이스 정원



고성 백암산 자락에서 15년 동안이나 비밀스럽게 가꾸어 오던 정원이 비밀의 문을 활짝 열었다. 매년 여름이면 정원에 가득한 초록 숲 사이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던 색색의 수국이 드디어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된 것이다. 뜨거운 여름에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 고성 그레이스 정원에서 수국의 가장 찬란한 만개의 순간을 함께했다.

한 송이라고 불리도 될까, 아니면 한 다발이라고 불려야 할까. 둥근 원을 그리며 만개한 수국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송이를 보듬고 있다. 저마다의 송이가 모여 더 큰 송이를 만들어내는 수국의 아름다움. 그래서 수국은 따로 피었을 때도 아름답지만, 함께 모여 있을 때 더 빛을 발한다. 곳곳에서 수국 잔치가 벌어지는 이곳, 고성 그레이스 정원처럼 말이다.

가족을 위한 정원에서 모두를 위한 정원으로

따뜻한 햇볕이 대지를 간질이는 초여름부터 열기가 사그라드는 늦여름까지, 수국 잔치는 끝나지 않는다. 특히 고성에는 옹기종기 모여 피워낸 수국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여름의 고성이 다른 계절보다 더 매력적인 이유가 바로 수국 덕분일 터. 그중에서도 그레이스 정원은 수국도 수국이지만 비밀의 정원을 엿본 듯 기분 좋은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레이스 정원은 조행연 대표가 16만 평 대지를 사 정성으로 가꾸어오던 가족 정원이었다. 흙을 다져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었으며, 물길을 만들고 산책로를 만들었다. 그렇게 15년을 정성스럽게 가꾸어오다 보니, 착박한 대지가 어느새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이 정원의 아름다움을 가족끼리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그래서 120여 종의 식물과 30만 그루의 수국이 화려하게 꽃피는 정원을 가족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그렇게 지난 2020년 6월 25일, 그레이스 정원이 문을 열었다. 그레이스 정원은 도내 여섯 번째로 등록된 민간정원으로, 지난해 문을 연 후부터 지금까지 도민의 섬티이자 여행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비밀의 숲으로 들어가는 문

드디어 비밀의 숲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섰다. 입구에 들어서니 초록의 메타세콰이아가 방문객을 반긴다. 돌길을 따라 길게 드리워진 초록의 길을 걷는 동안 길 가장자리에는 수국의 향연이 이어진다.

수국은 참으로 신비한 꽃이어서, 같은 종이라도 산성 토양에서는 청색을 띠고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붉은색을 띤다. 그레이스 정원을 천천히 걷다 보면 색색의 수국도 많지만 유난히 푸른색이 많았다. 토양의 성질을 인위적으로 바꿔 얼마든지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진 것 같아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푸른색이어도 다 같은 푸른색이 아니다. 푸른색이라는 단어 속에 가뉘버리겐 너무 다양한 색이 섞여 있어서, 그저 어휘력 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

그레이스 정원에는 대부분 수국을 보기 위해 찾아오지만, 수국뿐 아니라 메타세콰이아, 에메랄드 골드, 종려나무 등 나무도 많고 식물도 다양하다. 초록 공간을 지나면 숲속 작은 도서관을 만날 수 있고, 아담한 교회의 모습도 눈에 들어온다. 산책로 곳곳에 예쁘게 꾸며진 들계단과 급한 걸음을 잠깐 멈추고 가만히 꽃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의자도 곳곳에 놓여 있다. 공원을 걷는 내내, 공간마다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정성을 다해 가꿔온 이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누군가가 마음으로 심은 꽃, 누군가의 마음에 기댈다

수국 한 송이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 그레이스 정원에 피어난 30만 그루의 수국을 보며, 이 정원의 수국은 모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돌보는

이의 정성이 없었다면, 이렇게 수국으로 장관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이해인 수녀는 <수국을 보며>란 시에서 '각박한 세상에도 서로 가까이 손 내밀며 원을 이루어 하나 되는 꽃'이라고 표현했다. 함께 원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꽃이라니, 모이지 않고 흩어져야 하는 시국이 되고 보니 수국 한 송이가 유독 아름답게 느껴졌다.

고성 그레이스 정원의 수국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레이스 정원

문의 055-673-1803
www.gracegarden.co.kr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삼상로 1312-71



빛으로 수놓은 통영의 밤

이야기가 있는
디지털 테마파크
빛의 정원,
디피랑

뜨거운 햇빛이 비치던 공원에 어둠이 찾아 들었다. 대지를 달궀던 해가 자취를 감추고 조금씩 빛을 잃어갈 때, 밤이 되어야 비로소 깨어나는 이야기가 있다. 빛이 숨어든 자리에서 빛으로 다시 태어난 통영 남망산의 밤. 기술과 예술이 만나 만들어내는 환상의 공간, 빛의 정원 디피랑으로 여행을 떠났다.

한려해상공원의 푸른 바다와 점점이 찍힌 섬, 자연과 삶이 하나로 어우러진 어촌마을의 풍경. 통영은 사계절 내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그중에서도 바다가 보이는 언덕 '피랑'은 통영을 대표하는 이름이 됐다. 피랑은 비탈이라는 뜻의 통영 사투리로, 동피랑과 서피랑 벽화마을은 지금도 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 벽화마을의 벽화는 2년마다 새 옷을 갈아입는다. 그렇다면 그동안 벽을 수놓았던 벽화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자유를 얻은 벽화들이 밤마다 모여 숨은 통영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곳, 통영 남망산 디지털파크 '빛의 정원, 디피랑'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낮에는 쉼터로, 밤에는 빛의 축제로

통영 남망산조각공원은 통영의 자연을 거닐며 조각 작품도 즐길 수 있는 쉼터이자 산책로다. 통영항의 풍경과 멀리 바다의 풍경, 드높은 푸른 하늘과 초록 숲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찾는 이가 많다.

자연과 조각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원이 밤이 되면 빛의 정원으로 탈바꿈한다. 지난 2020년 10월 16일, 이곳 남망산조각공원이 디지털 테마파크로 재탄생했다. 빛의 정원 디피랑은 디지털의 '디'와 절벽을 뜻하는 '피랑'을 합한 것으로, 1.5km의 공원 산책길 곳곳에 미디어아트와 조명을 이용해 15개의 테마로 구성된 빛의 이야기 길이다. 각 공간마다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일루미네이션 조명 등 첨단 미디어기술을 접목해 동피랑과 서피랑 벽화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통영 예술가의 작품을 빛으로 해석해 통영다움을 가득 담았으며, 남해안별신굿 가락을 오케스트라로 연주한 테마곡이 산책로 곳곳에 울려 퍼지면서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 디피랑

남망산에 밤이 찾아오면, 벽화들이 살아 움직일 시간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통영시민문화회관 벽면에 장식된 '생명의 벽'이다. 생명의 벽은 동피랑과 서피랑 벽화들이 날아와 머무는 곳으로, 자개 문양의 영상이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다.

'디피랑 산장'을 통과해 디피랑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빛의 축제가 펼쳐진다. 야광 페인트로 길을 밝힌 '이상한 발자국'을 따라 환상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이제 본격적인 탐험을 즐길 시간이다. '반짝이 숲'을 지나 '오래된 동백나무'를 만났다. 안개와 빛으로 가득한 '빛 그물'을 건너면 빛이 폭포처럼 쏟아지며 흘러내리는 '신비 폭포'에 닿는다. 벽화가 가득한 '그림 바다'를 지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비밀 공방'에 다다른다.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는 '메아리 마을'을 지나 아름다운 빛의 선율이 마음을 울리는 '빛의 오케스트라'를 만났다. 은하수 광장에 마련된 '디피랑'에서는 벽화들이 살아 움직이는

미디어 쇼가 발길을 붙잡는다.

이처럼 지루할 틈 없이 변주되는 빛의 이야기에 폭 빠져있다 보면 어느새 숲 속 출구다. 밤에만 만날 수 있는 빛의 정원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 덕분에 현실은 잠시 잊고 환상 속에서 행복했으며,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고 나면 어느새 통영의 밤하늘에 별빛이 가득하다.

낮에도 밤에도 머물고 싶은 통영

빛의 정원 디피랑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걱정과 우려 속에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자연 속에서 충분한 거리 두기를 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어서 큰 사랑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문을 연 지 7개월여 만에 누적 관광객 10만 명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 지난 5월 말에는 제21회 대한민국 상품대상에서 관광상품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 관광지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동안 통영은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았지만, 밤에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디피랑이 문을 열면서 통영의 밤 풍경도 바뀌었다.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아니라, 자연 속에 수놓은 환상의 빛이 통영을 찾고, 머무르게 만들었다.

디피랑에 가면 기술이 예술이 되는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통영의 숨은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으니, 이제 디피랑은 통영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빠트려서는 안 되는 관광명소가 됐다. 지치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더위가 잠든 한여름 밤 세상과 잠깐 거리 두기를 하고 빛의 정원 디피랑으로 여행을 떠나 보자. 어렸을 때 상상했던 동화 속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니.

디피랑

문의 통영관광개발공사 1544-3303
dpirang.com
경남 통영시 남망공원길 29



Mecenat News

2021 경남메세나협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경남메세나협회 2021년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5일(목) 호텔인터내셔널에서 개최되었다.

위기 속에서도 피어난 문화예술의 꽃

협회는 2020년 사업결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과 예술단체 158개 팀 결연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정기탁 후원을 포함하여 약 31억여 원이 예술단체에 지원되었고 그 덕분에 도민과 지역사회에 예술로 위안과 감동을 전할 수 있었다.

진주시, 매칭펀드 사업 참여

결과 보고에 이어 2021년도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다. 금년부터는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에 진주시가 신규로 참여한다. 진주시의 지원은 경남 서부권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힘입어 협회는 2021년도 기업과 예술단체 180개 팀 이상 결연을 달성을 다짐했다.

경남 메세나 활동을 선도할 임원 재구성

이날 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임원 선임이 이루어졌다. 협회 부회장으로 남명산업개발(주) 이병열 회장이 신규 선임되었고 BNK 경남은행 고영준 상무와(주)무학 최낙준 총괄사장, NH농협은행 경남본부 최영식 본부장은 교체 선임되었다. 이사에는 창원상공회의소 손무근 상근부회장이 신규 선임되었고 경남도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이 교체 선임되었다. 이로써 2021년도 경남메세나협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0명, 감사 2명, 이사 14명, 고문 4명으로 총 31명이 구성되어 앞으로 메세나의 선도 역할을 이어나가게 됐다.



2021 경남메세나협회 임시이사회

경남메세나협회는 5월 12일(수) 2021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제9대 협회장에 BNK경남은행 최홍영 은행장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최홍영 신임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와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경남메세나협회의 회장직을 맡게 되어 기쁨 못지않게 소명과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경남의 문화예술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침체된 경남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남형 예술 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창작활동을 장려하여 팬데믹 상황에도 창작자와 관객의 소통을 연결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소외지역 예술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메세나 네트워크 출범을 앞두고 지역 최초의 메세나협회이자 경남의 대표적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경남메세나협회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전국적인 메세나 운동 활성화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Mecenat News

2021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실시

올해도 중소기업 169개사와 157개 예술단체가 만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한다.

진주시 참여, 국비 증액으로 예술 후원 확대

올해 사업에는 진주시가 신규 참여한다. 창원시와 김해시, 사천시, 통영시에 이어 기초자치단체로는 5번째 참여다. 이로써 도내 예술 후원이 더욱 확대되었다. 진주시가 지원하는 펀드교부금은 풍류춤연구소와 경성오페라단 그리고 공연예술박스 더플레이에 각각 전달되었다. 진주시의 참여는 경남 서부권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비보조금도 증액되었다. 경남메세나협회와 한국메세나협회, 제주메세나협회는 메세나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 예술지원 매칭펀드>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올해 경남메세나협회는 작년도 사업비보다 1억 원 증액된 국비 3억 원을 경남 지역 30개 예술단체에 골고루 교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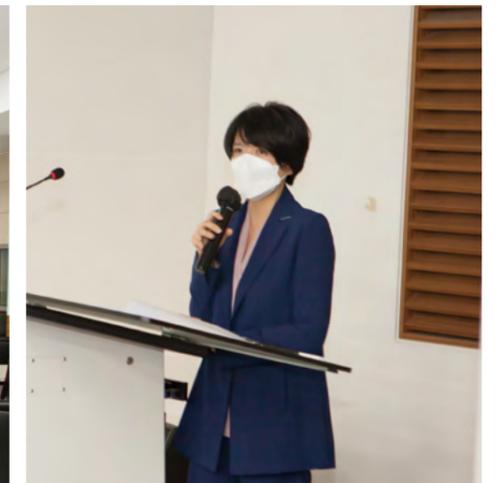
예술단체 워크숍 개최

4월 29일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2021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에 선정된 예술단체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술단체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워크숍에는 매칭펀드 사업에 올해 처음으로 참여하는 신규 예술단체 실무진들이 참여했다. 이날 워크숍의 문은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안채린 교수가 열었다. 안채린 교수는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인의 사회보장과 실업위기 대처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처음 시행되었다.

기업-예술단체 우수 교류활동 사례 발표는 (사)극단현장의 박남주 기획실장이 맡았다. (사)극단현장은 (주)참신한건설과 예술과 철학을 공유하며 오랜 기간 결연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주)참신한건설은 극단현장이 건립한 복합문화예술센터인 예술중심 ‘현장’ 리모델링 공사에 회사의 이윤을 전혀 남기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향후 모든 공공 입찰공사 금액의 1%를 극단현장에 기부하기로 약정하는 등 교류와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이어 경남메세나협회 손수나 대리가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협회는 매칭펀드 사업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본 사업을 통해 기업과 예술단체 간 창조적 파트너십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술단체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Mecenat News

에코시스템(주) - 경남메세나협회 '문화협력 협약' 체결

에코시스템(주) 지역 영화인들과 손잡고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위해 3억 원 후원

에코시스템(주)과 경남메세나협회는 지난 4월 15일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에코시스템 김경구 대표이사, 경남메세나협회 강신철 전무, 기후시민백과제작위원회 이찬원 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에코시스템(주)은 경남메세나협회와의 문화협력 협약 체결을 통해 예술단체 발굴 및 지원과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한다. 그 시작으로 지정기탁 결연을 통해 기후 위기의 시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기후시민백과> 제작을 위해 기후시민백과제작위원회에 3억 원을 후원하기로 약정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경구 에코시스템(주)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서적 소통과 감동을 나눌 수 있는 매개체이자 창의적 경영의 원동력이기도 하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서가 자리 잡고 지역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후시민’은 기후 재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성찰적 주체이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제도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행동시민을 의미한다. 기후시민백과제작위원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영화에 담고자 한다. 제작위원회는 기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내야 할 자연의 풍경을 담기 위해 습지, 논, 바다 등지를 부지런히 답사하며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화는 내년 5월 개봉 예정이다.

기후시민백과제작위원회는 제작비 일부를 시민 펀딩으로 마련한다. 펀딩은 10만 원부터 약정할 수 있다. 인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동참하려면 기후시민백과제작위원회(055-266-8216)로 문의하면 된다. 영화 수익금은 환경 보호를 위한 공익활동 사업에 쓰인다.

기후 시민 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기후시민의 유쾌한 기후대응백과사전



Mecenat News

(주)뉴성관광 - 경남메세나협회 '교류협력 협약' 체결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 임직원을 위한 제휴특가 프로모션 시행

(주)뉴성관광과 경남메세나협회는 지난 7월 공동의 공익적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사회적 가치를 나누기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주)뉴성관광은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위치한 테마파크인 로봇랜드의 광고, 홍보 및 온라인 입장권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교류협력의 첫 발걸음으로 (주)뉴성관광은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 프로모션을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9월 5일까지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 임직원이 로봇랜드를 이용할 경우, 1인 중일권을 17,000원(51%할인가)에 구입할 수 있다.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협회 회원사 임직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명함, 사원증 등)를 지참하여 로봇랜드 단체상담실에서 티켓을 구매하면 된다.

로봇랜드 제휴특가
예약 전 꼭-체크하세요!

입장 및 발권시간	입장시간	10:00
	발권시간	17:30
	입장마감시간	19:00

관 료: 로봇랜드 단체상담실
문의처: 055-273-0606

경남메세나협회, 지역 청소년들과 문화나눔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에게 문화예술로 위로를 전하는 경남메세나협회의 문화나눔 사업은 올해도 계속된다.

음악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 라이터 지소울(GSoul)과 탁월한 가창력으로 리틀 이선하라 불리는 벤(BEN)이 지난 6월 19일 창원 성산아트홀을 찾았다. 창원특례시 지정 기념하는 이 뜻깊은 공연에 경남메세나협회는 지역청소년 40여 명을 초청하여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공연에 초대된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크게 줄어 아쉬움이 컸는데, 오랜만에 공연장에 나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매우 즐거웠고, 평소 음원으로만 들던 가수들의 목소리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이었던 소감을 전했다. 경남메세나협회의 문화나눔 사업인 나눔공연과 나눔티켓 사업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경남메세나협회(055-285-5612)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모두를 위한 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김재환

2020년 9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조금 잠잠해질 무렵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이라는 흥미로운 전시가 열렸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전시는 반려견이 사람들과 함께 미술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시이자 프로그램이었다. 아마도 개를 미술관의 손님으로 맞이한 한국 최초의 전시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당시 꽤 이슈가 되었던 전시다. 개를 관람객으로 맞이하는 전시이다 보니, 인간이 아닌 개의 시선과 성향을 고려해야했고 그 결과 기존 전시와는 다른 형태의 공간이 펼쳐졌다. 전시 작품은 개의 시선을 고려해 전시실 바닥 쪽으로 한참 내려오도록 배치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편할 정도로 낮게 자리 잡았다. 노란색과 파란색으로만 사물을 분간하는 개의 특성을 생각해 포스터의 색상도 노란색과 파란색을 주로 사용했다.

개가 무슨 예술작품을 감상하냐고 손사래 칠 수도 있지만, 이 전시의 가치는 미술관에서 사람과 함께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집에서는 가족이지만 밖에서는 가족이 될 수 없는 게 현재 우리 사회 반려동물의 현실이다. 야외 공원의 산책로나 반려동물 전용 카페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도시 공간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극히 인간적인 공간이자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미술관의 실질적인 손님으로 개들을 초대하면서 현대사회의 반려의 의미, 우리 사회에서의 타자들에 대한 태도, 미술관이 담보하는 공공성의 범위 그리고 공적 공간에 대한 개념 등을 질문해보고자¹⁾” 이 전시를 열었다고 밝히고 있다. 미술관을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개방하고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보는 것. 코로나19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전시 방식이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미술을 알만한) 제한된 누군가를 관람객으로 설정해두었던 과거와 달리 온라인에 접속하는 사람은 누구나 미술관 관람객이 되었다. 관람객의 확장은 자연스럽게 전시 콘텐츠나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로 이어졌다. 가깝게 경남도립미술관 역시 새로운 형태의 전시와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

경남도립미술관은 작년 10월 최정화 작가의 과일 풍선 작품들을 경남 곳곳에서 게릴라식으로 전시했다. 작품의 여행은 창원 조각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성산아트홀’에서 시작해 ‘김해한옥체험관’ 마당으로 이동했다. 추석 1주일 전에는 ‘마산청과시장’으로 찾아가 과일을 사러 온 시민과 만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전시 운영을 하지 못했던 터라 야외에서 개최된 과일여행 프로젝트는 꽤 호응이 좋았다. 과일이 전시되는 장소와 일정이 SNS로 공유되어 이곳을 찾아다니는 여행자가 생기기도 했으니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1세기 포스트뮤지엄(Post Museum)의 한 축인 ‘미술관 밖 미술관’을 가볍게 실험해 본 것이다.

그래서 **《개를 위한 미술관》**은 관람객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과일여행프로젝트》**는 공간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미술관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확장성이 앞으로 더 활성화된다면 미술관은 확실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포스트 뮤지엄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다음 아닌 생산 영역의 확장이다. 즉 미술관에서 작품을 생산하고 전시하는 주체는 여전히 미술계의 ‘작가’라는 명함을 가진 사람들의 몫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생산 주체의 확장이야말로 미술관의 변화에서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다.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최정화 작가의 전시와 함께 열린 **《살어리 살어리랏다 : 별유천지》**는 바로 이 예술 생산 주체의 확장을 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전시에는 경남 지역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공유를위한창조(거제), 비컴프렌즈(양산), 돌창고프로젝트(남해), 팜프라(남해)가 참여했다. 전시에 참여한 네 팀은 더 가치 있는 세상을 향해, 즉 그들의 별유천지를 향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들은 본인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쟁점, 다양한 갈등들을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해보고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술계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넘칠 만큼의 예술적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 이웃과의 소통과 협업은 그들의 주된 문제 해결 방식이었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들은 곧 사회적 가치로 변환되고, 그 과정에서 보인 다양한 관계 형성과 기억의 공유들은 예술적 가치, 미술로서의 가치를 담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이 별유천지 전시가 가장 공공적 관점에서 실행된 전시가 아닌가 싶다. 전시를 향유하는 관람객의 확장은 딱히 어려운 게 아니다. 발화의 권력, 즉 목소리를 가진 자가 타자를 향해 말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진짜 어려운 건 발화, 즉 이야기할 수 있는 목소리를 어떻게 확장하느냐이다. 이 확장성이야말로 예술의 민주화를 구현하는 길이다. 미술관의 공공성은 바로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미술관으로 수렴해 다시 발화할 수 있도록 판을 열어줄 때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미술관이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배움’의 장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런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는 반세기 전에 이미 논의가 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다. 뮤지엄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연구한 후퍼 그린힐(E. Hooper-Greenhill)은 미술관이 일방향적 교육에서 쌍방향적 교류로 소통의 범위를 확대할 때 더 큰 성과가 있다고 선언했으며, 니콜라 부리요(Nicolas Bourriaud)는 자신의 저서 『관계의 미학』에서 현대미술의 특징을 작가와 작품 그리고 관람객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순간적 관계망(공동체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술작품 자체의 가치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이 머무르는 전시 현장에서 작가, 작품, 관람객이 서로 뒤섞이며 일시적이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과거 미술에서는 볼 수 없는 현대미술의 특징이다.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미술관의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한국의 공공미술관의 성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미술관은 더 이상 성스러운 보물인 예술작품을 조심스럽게 감상하는 신성한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뒤섞이고, 작가와 관람객이 뒤섞이면서, 생활과 예술마저 뒤섞이는 유희의 장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하나의 우세종으로 자리잡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견희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 최근 벌어진 전국 지자체의 열광적인(?) 노력을 보고 있으면, 이견희 컬렉션이라는 보물이 우리 도시를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발전시켜 줄 것이라는 근대적 뮤지올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역시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라는 미래가 도래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1) 국립현대미술 홈페이지/전시/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http://www.mmcagokr>)

탱고의 전설,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

춤이 아닌 음악으로, 탱고를 말하다

남미의 어느 허름한 무대 위, 반도네온을 손에 든 연주자가 구슬픈 음으로 연주를 시작한다. 음악이 시작되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대에 등장해 현란하고 관능적인 몸짓으로 춤을 추기 시작한다. 피아졸라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탱고의 전부였다. 하지만 피아졸라는 춤을 위해서가 아닌, 음악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탱고를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탱고는 피아졸라를 만나 '누에보 탱고', 즉 새로운 탱고로 재탄생했다.

탱고를 연주하는 데 클래식 악기를 사용하고, 클래식 무대에 반도네온을 편성하기도 했다. 앉아서 연주하던 반도네온을 의자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서서 연주하는 연주법으로 바꿔 대중과 눈높이를 같이하며 소통하고자 했다. 장르를 뛰어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만들어낸 피아졸라의 탱고는 그동안 춤을 추기 위한 연주곡에 불과했던 것을 음악을 들으며 감상할 수 있는 하나의 장르로 안착시켰다. 올해는 반도네온 연주자이자 작곡가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피아졸라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탱고는 지금도 많은 클래식 무대에서 연주되며 관객들에게 목직함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민자의 삶과 함께했던 반도네온 그리고 탱고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1921년 아르헨티나에서 이발사 아버지와 재봉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뉴욕으로 이주했으며, 열 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사 준 반도네온을 연주하면서 음악과 인연을 맺었다. 뉴욕의 어둡고 황량한 뒷골목에서 어린 피아졸라는 반도네온을 연주하며 외로움과 허기를 달랬다. 그런 피아졸라에게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탱고 가수이자 작곡가인 카를로스 가르델이 뉴욕으로 건너온 것이다. 동향 출신으로 가르델과 친분을 조금씩 쌓아가던 중, 피아졸라는 가르델 앞에서 반도네온을 연주할 기회를 얻었다. 피아졸라의 연주에 매력을 느낀 가르델은 자신이 제작 중이던 영화에 그를 출연시켰고, 영화 속에서 피아졸라는 반도네온 연주 솜씨를 마음껏 뽐냈다. 그의 나이 열두 살 때의 일이었다.

정통 클래식과 탱고, 선을 넘는 작곡가

뛰어난 반도네온 실력을 인정받은 피아졸라는 미국을 떠나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뒤부터 반도네온 연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즈음 많은 스승에게 사사하며 다양한 음악을 접했다. 오랫동안 반도네온을 연주하며 주로 탱고 음악을 해왔지만, 전통적인 탱고가 아닌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음악 이론을 기초부터 공부하고 피아노 독주곡을 만들기도 했다.

1951년 피아졸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향곡>이라는 클래식 작품을 발표했는데,

정통 관현악 편성에 반도네온 두 대를 추가했다. 당시에는 클래식 공연장에 반도네온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청중들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난동을 피웠지만, 이 곡으로 저명한 음악상을 받으면서 클래식 작곡가로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탱고와 조금 거리를 두고 클래식의 세계에 폭 빠져있던 어느 날, 1953년 그에게 또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파리의 작곡가 나디아 블랑제에게 사사하며 클래식 작곡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블랑제가 보기에 그의 음악은 누군가의 모방에 불과했고, 그의 정체성을 담았다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피아졸라가 만든 탱고 음악을 듣게 된 블랑제는 '여기에 진짜 피아졸라가 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스승의 인정을 받은 피아졸라는 탱고를 연주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그동안 생계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탱고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발이 아닌 귀를 위한 탱고, 누에보 탱고의 탄생

피아졸라는 탱고도 클래식이나 재즈처럼 하나의 장르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이때부터 피아졸라는 클래식 화성을 탱고에 접목하기 시작했다. 탱고도 클래식이나 재즈처럼 하나의 장르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클래식을 배우고 재즈를 즐기고 탱고를 연주했던 경험을 하나로 엮으면서 '장르로서의 탱고'가 탄생했다. 마침내 1960년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5중주단을 결성하고, 자신의 탱고를 '누에보 탱고'라 부르기 시작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정통 탱고 가수들과 갈등을 빚는가 하면, 클래식 팬들의 아우를 한 몸에 받기도 했다. 하지만 피아졸라는 끈질기게 탱고에 클래식을 접목해 나갔고, 마침내 높은 클래식의 벽을 뛰어넘고 견고했던 탱고의 문을 활짝 열었다.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던 탱고의 황제

피아졸라가 남긴 곡은 1,000여 곡에 달한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곡으로는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 프리스케이팅에서 선보인 <아디오스 노니노>라는 곡이다. 이 밖에도 <리베르 탱고><망각><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등 많은 작품이 사랑받고 있다. 특히 그가 사망하던 해인 1992년 크로노스 4중주단이 발표한 피아졸라 작품집 <다섯 개의 탱고 센세이션>이 말 그대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큰 사랑을 받았고, 이후 클래식 무대에서 피아졸라의 작품이 더 많이 선보이는 계기가 됐다.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지금, 탱고는 하나의 장르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세상의 거센 반발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탱고를 감상할 수 있다. 장르를 넘나드는 색다른 시도를 통해 탱고를 춤에서 음악으로 바꾼 사람, 피아졸라는 반도네온 연주자로 시작해 피아노와 클래식, 재즈 그리고 전자음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도를 한 시도 포기하지 않았던 '도전하는 음악가'였다.

수필의 매력

隨筆

누군가가, “예술은 인생의 빵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에 곁들이는 포도주이다.”라고 한 건 잘 말한 것 같다. 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에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예술 장르 중에서 대체로 다가가기 쉬운 장르가 문학이 아닐까 싶다. 다른 장르는 악기(음악)가, 화구(미술)가, 무대(연극 무용 국악 등)가 필히 있어야 하지만 문학은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된다. 흔히들 문학을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문학은 신비로운 높은 산이 아니라 누구나 갈 수 있는 집 근처의 야트막한 야산이다. 천재가 아니라 고뇌하고 번민하는 평범한 사람이 쓰는 글이다. 진솔하게 써야 하므로 사람 냄새가 나는 글인 까닭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

수필은 자신의 재능과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쓰는 글이지만 나아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는 겸허한 자세가 요구된다. 수필은 작가의 심내풍경心內風景을 그린 문학이다. 따라서 수필은 자신을 되비추는 자조自照의 문학이요 관조觀照의 문학이다. 수필은 허위나 가식 없이 진솔하게 써야 한다. 한 편의 글을 읽었을 때 가벼운 떨림과 종소리 같은 여운이 있다면 좋은 수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이론 습득을 거쳐 폭 넓게 읽고, 깊이 사유하고, 끊임없이 습작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글은 대화할 때보다 더욱 세밀하게 의미 전달에 마음을 써야 하고 가장 적절한 어휘 선택이나 바른 문법 쓰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운말 바른말 쓰기는 물론, 문장의 정확성, 명료성, 논리성 그리고 통일성이 요구된다. 누구나 좋은 글을 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좋은 글을 쓰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먼저 반듯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수필은 삶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먼저 일기쓰기를 꾸준히 하면 큰 도움이 된다. 일기란 하루 동안의 일을 다 쓰는 게 아니다. 하루 중 특별한 일을 깊게 쓰다 보면 한 편의 글이 된다. 한 편의 글에서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하면 자칫 주제를 벗어나거나 산만하기 쉬우므로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좀 더 깊게 쓴다. 서두와 결미는 대응관계를 가져야 한다. 서두는 거창한데 결미가 가볍게 끝나거나 서두의 무게에 비해 결미가 너무 거창하면 균형이 깨어지게 마련이다.

예리한 관찰력, 풍부한 상상력, 박학다식한 사고력, 깊이 있는 철학과 사상, 그리고 아름다운 감성과 지성을 겸비한 독특한 개성의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글짓기는 건축의 과정과 같다. 좋은 글도 한 치의 오차가 있으면 무너진다. 문장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글 전체가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전체와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한 문장에서 적당한 글자는 25자(띄어쓰기 포함) 이내여야 하며 50자를 넘으면 좋은 문장이라 할 수 없다. 사전을 항상 가까이 두고 본다. 책꽂이에 꽂아두지 말고 손이 쉽게 가는 곳에 두고 자주 펼친다. 특정인에 대한 비판을 삼가야 하며 자신의 감정을 글에 이입시키면 좋지 않다. 슬픈 내용을 장난스럽게 표현해선 안 된다. 진중한 삶의 조언을 희롱 섞인 어조로 담아내도 안 된다.

글을 쓰다 보면 명언이나 속담 등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짧게 빌려 써야 한다. 너무 길면 자신의 글인지 누구의 글인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좋은 작품을 만나면 필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그 작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추상적인 표현 대신 구체적인 설명을, 전문용어 대신 평범한 말을 사용한다. 추상적인 말이란 읽는 사람에 따라 제멋대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장부호도 글자 못지않게 중요하다. 꼭 필요한 부분에만 넣는다. 역사적인 날에는 가운데점(3·1절, 8·15 등)을 쓴다. 제목의 끝에는 문장부호를 넣지 않는다.

글쓰기가 끝났다면

글 한 편 써놓고 음식 뜬들듯 가만 덮어 두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읽어 본다. 슬플 때, 기분 안 좋을 때 썼다면 내용이 어둡고 축 처진다. 기쁠 때 썼다면 흥분하여 가볍게 경솔하게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 제목은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목은 사람 이름만큼이나 중요하다. 주제를 암시하면서도 참신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단어나 구절을 찾는다. 흔하지 않아야 하고 새로워야 한다.

평소 좋은 글을 많이 읽어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언어 감각이 자연스레 나타나므로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작가는 쓰는 자 이전에 먼저 읽는 자이어야 한다. 좋은 글들을 찾아 읽고 정확한 낱말과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한다. 좋은 문장을

읽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고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다.

소재 잘 선택해야 한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 누구나 겪는 이야기는 식상하다. 오직 나만의 글이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한자와 숫자, 어려운 말을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냥 친구와 찻잔을 사이에 두고 편안하게 도란도란 얘기 나누듯 쓰면 되는 것이다. 지금 쓰고 있는 글이 ‘나의 대표작’이라고 생각하며 써야 한다. 그래야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 글쓰기는 뜨겁게 달궜진 쇠를 차가운 물에 식히고 다시 망치질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강철 같아야 한다. 오랜 담금질을 거쳐야 단단한 글이 나온다.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한다. 자신이 겪었던 평범한 이야기만 써서는 안 된다. 어려움에 처한 독자들에게 위안과 도움이 되는 글을 써야 한다. 첫 문장과 끝 문장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작품의 명운이 달려 있다. 좋은 글은 깊고 심오한 내용을 쉬운 말로 표현한 것이다. 나쁜 글은 별것도 아닌 내용을 어려운 말로 치장해 놓은 것이다. 자신이나 가족의 자랑보다는 오히려 실수담을 쓴 글에서 독자들이 친근감을 느낀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위의 글을 참고해서 글 한 편을 다 썼다면 마지막으로 꼼꼼한 퇴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저속한 내용은 없는가, 의도한 대로 내용이 되어 있는가, 문맥은 정확한가, 내용의 모방은 없는가, 단락의 구분은 정확한가, 부자연스런 점은 없는가,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는 맞게 썼는가 등.

비록 힘들게 썼더라도 한 편의 글을 완성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그 글을 읽은 사람이 칭찬이라도 한다면 가슴이 벅차오르며 행복감이 젖을 것이다. 바르고 정확한 문장을 기본으로 하여 해풍처럼 시원하고 봄볕처럼 따뜻하게 쓴 글은 누구라도 한 번 읽고 나서도 또 읽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다. 사랑처럼 달콤하기도 하고 승승처럼 구수하기도 한 그런 글은, 쓴 사람도 읽는 사람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질 것이다.

이것이 수필의 매력이 아닐까 싶다.

수필가 강현순

- 『한국수필』로 문단 데뷔(1993)
- 경남수필문학 회장, 『경남문학』 편집장, 경남문인협회 부회장 역임 외
- 현) 경남문인협회 수필분과위원장
- 수필집 『좋은 예감』 『세 번째 나무』 『꿈꾸는 섬』 『꽃과 사람』 발간



2021년 하반기 문화캘린더

* 공연·전시 일정 및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9월

10-12월

<TIMF 재즈나이트>

8.20 / 9.24 / 10.22 / 11.26 / 12.17
/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 / 출연: 강윤미, 콰르텟의

통영의 밤을 재즈로 물들이는 통영국제음악재단의 기획 프로그램 7월 강윤미 콰르텟의 공연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국내외 유수의 재즈 뮤지션들이 아름다운 통영을 찾는 관객들과 재즈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 <문화만찬>

8.24(화) 코믹연극 <어쩌다보니>
9.28(화) 음악회 <음악선물>
10.27(수) OST음악회
11.24(수) 클래식 <한국가곡과 세계>
/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늬홀

문화예술이 고된 시민들을 위해 김해서부문화센터에서는 8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회씩 문화만찬이 차려진다.

에바 알머슨의 두 번째 이야기 <Vida:Life>

7.3(토)~9.5(일) / 성산아트홀 전시실

2018년을 시작으로 전국 40만명 관람객에게 무한한 감동을 선사한 'HOME' 전시에 이은 에바알머슨의 두 번째 이야기다. 이번 전시는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연극 <사랑해요, 당신>

9.10(금)~11(토) / 3-15아트센터 대극장

연극 <사랑해요, 당신>은 오랜시간 함께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잊은 노부부에게 치매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평범한 일상의 감사함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있는 연극이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백건우와 아상곡>

8.24(화) / 3-15아트센터 대극장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가 쇼팽의 아상곡으로 창원의 관객을 만난다. 올해로 데뷔 65주년을 맞은 피아니스트 백건우는 쇼팽의 내밀한 감성과 자기 고백적인 아상곡을 거장의 시선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양인모 바이올린 리사이틀 <현의 유전학>

9.3(금) /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늬홀

파가니니 국제 콩쿨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거머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리사이틀 <현의 유전학>에서 탄성과 긴장감이라는 '현'의 속성을 우주라는 인류의 역사와 우주적 공간으로 대입하여 풀어낸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한다.

클라라 주미 강&김선옥 듀오 리사이틀

9.8(수) /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세계 클래식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두 아티스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함께 듀오 무대를 펼친다. 지난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연구에 오롯이 힘을 쏟은 두 사람이 그리는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을 기대해 본다.

와이즈발레단 <지젤>

10.29(금)~30(토) /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등과 함께 고전 발레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르지 못할 사랑의 아픔과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 노래하는 로맨틱 발레 레퍼토리를 와이즈발레단의 무대로 만나보자.

연극 <토지 II >

10.29(금)~31(일) /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1.21(일) /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

허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을 연극화한 작품이다. 평단과 대중의 찬사를 받은 <토지 I>에 이어 <토지 II>는 간도에 정착하고 해방을 맞이하기까지의 최첨단 인물들의 갈등과 반목을 통해 인간 내면의 원초적 심상을 무대 위에서 형상화한다.

뮤지컬 <세종 1446>

11/19(금)~20(토) /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2/3(금)~4(토) /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세종'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그린다.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한글창제에 숨겨진 세종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 세종의 일대기를 그려냄과 동시에 인간 세종에 대해 재조명한다.

국립합창단 <헨델의 메시아>

12.21(화) / 3-15아트센터 대극장

하이든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아>와 함께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는 헨델의 <메시아>는 아름다운 서창과 웅장한 합창, 그리고 수려한 아리아까지 전형적인 오라토리오 장르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피아졸라 100주년 퀸텟 내한공연

12.15(수) / 3-15아트센터 대극장

오로지 춤을 위한 반주에 불과했던 탱고를 단숨에 현대 클래식의 한 장르로 승격시킨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으로 진짜 누에보 탱고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펼쳐진다.

창원국제실내악축제

11.3(수)~7(일) / 성산아트홀

다양한 형식의 실내악을 소개하고, 실내악만의 매력을 널리 알린 창원국제실내악축제. 오는 11월, 2021 프라하의 봄 국제콩쿠르 우승팀인 아레테 콰르텟(사진)을 비롯한 국내외 최고의 연주자들이 가을밤의 낭만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피에타리 인키넨 & 손열음

12.19(일) /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피에타리 인키넨이 지휘하는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와 손열음이 만난다. 이들은 바그너 서곡과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협주곡, 브람스 교향곡 연주를 통해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An Woong Chul

엔리오 모리꼬네 심포니 시네마 콘서트

11.13(토) /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영화 속 음악들과 함께 영화의 명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 음악칼럼니스트 김문경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이 더해져 풍성한 영화음악계 거장들의 음악세계로 관객들을 따뜻한 감동으로 이끌 것이다.

정미조·말로·박주원 <THE 3 LIVE>

12.16(목) /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가요계의 전설 정미조, 최고의 재즈 보컬 말로, 신들린 핑거링의 기타리스트 박주원이 한 자리에 모여 팝과 재즈를 넘나들며 객석을 압도하는 무대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음악적 장관을 선사할 것이다.

Gyeongnam Mecenat Members

경남메세나 회원사

회장사

BNK경남은행

부회장사

남명산업개발(주)
NH농협은행 경남본부
(주)무학
(주)센트랄
(주)우수AMS(주)
(주)인산가
임경숙
(주)한국어나세
(주)화인테크놀로지

이사사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
경원벤티크(주)
고성오광대보존회
창원대학교 음악과
창원상공회의소
(주)리베라관광개발
범한산업(주)
산골농장(산청양계영농조합)
신화철강(주)
원광건설(주)
(주)지엔티
한국민예총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화성G&(주)

감사

박종춘 (주)정일 대표이사
이동기 청호환경산업(주) 회장

회원사

가야BS(주)
가야오페라단
(주)강민종합건설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거제컨벤션웨딩뷔페
경남개발공사
경남스틸(주)
경남신문사
경남오페라단
경남자동차판매(주)
경원여객자동차(주)
(주)경한코리아
(주)고구려
고려이노테크
(주)고려철강
고운가이드치과병원
고운치과병원
광동종합건설(주)
광신기계공업(주)
(주)구구
(주)국제전기
(주)국토보상원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 창원
그린산업(주)
그림갤러리(주)
(주)금강종합건설
(주)금술개발
(주)기산산업
김순태치과의원
(유)김해공영
김해상공회의소
낙우산업(주)
(주)남광디씨텍
남양매직(주)
뉴성운관광
늘푸른 요양병원
당당한방병원
(주)대경
대경건설(주)
(주)대길티에프
(주)대동주택
대방스페이스스틸(주)
대선주조(주)
(주)대승엔지니어링
대신금속(주)
(합)대신전기공업사
대한전선전기(주)

(주)대호테크
the큰병원
(주)덕광중공업
(주)동구기업
동양특수금속(주)
(주)동오프랜지
(주)동은화학
두남화학
(주)두산중장비센터
디씨엠(주)
디케이리크(주)
라운산산업개발(주)
마산정안과
(주)마창대교
명제한의원
몽고식품(주)
무림페이퍼(주)
문운수치과의원
미르치과의원
미조종합건설(주)
미즈맘 여성병원
법무법인미래로
(주)보덕건설
(재)봉림장학회
(주)부경
부곡스파디움
부산교통(주)
부성자동차학원
(주)부평디엔피
(주)복성산업
(주)사릭
사보이호텔
(주)산호수출포장
삼우금속공업(주)
삼원동관(주)
(주)삼전건설
삼정기업
(주)삼정터빈
삼흥열처리
삼흥테크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유)상화도장개발
(주)서영시스템
선린자모의원
(주)성우
(주)성환금속
(주)세복
세아창원특수강

(주)세양정공
(주)세호테크
승진기계(주)
시영건설(주)
신광에이스전기(주)
신요푸드시스템(주)
신창기계
(주)신한물산
(주)씨노텍
아진기계
(주)애드테크
(주)에스에이치아이
에이스비
(주)에이스코트
에코시스템(주)
(주)엔지피
영광산업 주식회사
(주)영남엘피씨
(주)영신화학
(주)영일정공
(주)영진테크
(주)영창기업
(주)예술상점
예인여성병원
(주)오곡산업
오션커뮤니케이션즈
(주)ONE
(주)옥산아이엠티
원광산업석재
원한의원
(주)웰템
유림건설(주)
윤한의원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의료법인성림의료재단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이레개발(주)
(주)이엔티
(주)이우
이피씨
인산죽염(주)
인화정공(주)
(주)장생도라지
(주)장성D.P.S
(주)정문애드테크
제일레스텍
(주)좋은콘서트
중앙건설(주)

(주)중앙금속
(주)지에스비
진해성모병원
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청아의료재단
최석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최익수의원
추고쿠삼화페인트(주)
캠코 경남지역본부
(주)코앞건설(참신한건설)
(주)코텍
쿠쿠홈시스(주)
태광실업(주)
태민산업(주)
태영엔지니어링
테라사이언스(주)
(주)포스텍
푸주옥
피케이벨브(주)
하이에어코리아(주)
한국남부발전하동본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니전자(주)
한국정기공업(주)
한국제강(주)
한국지역난방공사김해지사
한국태양유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주)한반도
(주)한창테크
(주)해동설계종합건축사
해성메탈(주)
현대공영(주)
(주)현대기업
(주)혜동
(주)호텔인터내셔널
홍기종합건설(주)
(주)화영
(주)화영
화영철강(주)
화이트치과
(주)화인에이티씨
(주)황웅정공
현대로템
흥일기업(주)
STX조선해양(주)
STX엔진(주)

회원 가입 안내

가입대상	연회비	가입절차
기업 개인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기업 200만원 이상 개인/예술단체 100만원 이상	입회신청서 제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gnmecenat.or.kr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정부가 인증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입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s & Business

결연사업_기업과 예술단체의 1:1 결연을 통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예술단체 워크숍_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 워크숍을 실시하여 기획 및 단체 운영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회원사 지원 사업 Cooperation

찾아가는 공연_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공연·전시를 기획하고 기업 내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화공간/문화경영도서_회원사에 우수문화공연 관람티켓 및 문화경영 도서를 전달합니다.
지정기탁_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업후원금을 지정 예술단체에 전달하고 기업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행복한 나눔공연_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이웃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즐거움 나눔티켓_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공연과 전시 관람 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합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Development

홍보지 '메세나지' 발간_협회 홍보지를 연2회 발간하여 경남메세나의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의 메세나 활동과 지역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경남메세나포럼_회원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_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지원하여 경남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찾아가는 메세나_경남의 18개 시·군을 찾아가 문화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 및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연구보고서 발간_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홍보대사 위촉_경남메세나협회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응원합니다. (1대 홍보대사 금난새 / 2대 홍보대사 홍지민)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_지난 1년간의 메세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대상_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고마움을 담아 공로를 시상합니다.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 ART IS TREE

기업사랑메세나콘서트_경남메세나협회의 대중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화합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환경과 최고의 삶을 위해
(주)대승엔지니어링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하수처리장비 전문 / 기계설비시공 / 산업기계제작

특허 제10-1559449호 **대형 협잡물 처리**



특허 제10-0231300호

- 최대통과수량 : 7940m³/Hr
- 눈목간격 : 1mm, 2mm, 3mm, 5mm, 6mm
- 최대 협잡물 배출 높이 : 1920mm
- 최대수위 : 1530mm
- 설치각도 : 45°



파워링크제진기 (POWER LINKSCREEN)

계단식여과기 (SREP SCREEN-SM)

STEP SCREEN (NT&NX) 특허 제10-1167841호

- 최대통과수량 : 2000m³/Hr
- 눈목간격 : 1mm, 2mm, 3mm, 5mm, 6mm
- 최대 협잡물 배출 높이 : 7000mm
- 최대수위 : 5000mm
- 설치각도 : 75°

성능인증
중소기업청
인증 획득




기적본능300m³/분 기적본능200m³/분

처리공정도



형식 : 약액세정법

계단식여과기 (STEP SCREEN-NT&NX)

탈취기 (DEODORIZATION)



■ 대표이사 최병천

■ 본사 주소: 경남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로 89
TEL 055-346-7435 FAX 055-346-7436

■ 서울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16
평촌디지털엠펙타이어 919호
TEL 031-8069-5435 FAX 031-8069-5436

내 집같이 다운누리 DAONnuri

T. 055) 237-7088 M. 010-3872-708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205번길 5 봉곡프라자 138,9호

건물클린케어(준공.입주청소) | 인재파견 | 소독업신고(방역)





EDDY's KITCHEN
 Dining Course Wine Oneday Class Party Anniversary Seminar

에디스키친은
 신선한 식재료를 통해 재료본연의 맛으로 요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깃든 맛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담아 요리합니다.
 섬세한 서비스와 감동을 선사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에스키스는의 두번째 프로젝트,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편안한 공간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약 및 행사문의 : 055-338-4200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46 에스키스

E S Q U I S S E



BNK 경남은행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 금융



내일을 위해 에스스지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은행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실천하는 은행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앞장서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ESG경영을 선도하는 착한기업
 푸른 미래를 그려 나가는 은행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금융

BNK경남은행입니다



BNK 경남은행

창원우체국

요금별납

사랑받는 기업, 행복한 사회 메세나가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메세나 기업의 나눔 덕분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집니다.

경남메세나협회와 함께하시면



MECENAT
with you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문화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문화마케팅 · 세미나 등을 통한 기업의
창조경영 및 문화경영 지원



도내 우수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초청



경남메세나지 및 언론을 통한
회원기업의 메세나 활동 홍보



경남메세나협회는 공익성 기부 대상단체입니다.
문화예술후원금 및 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Tel 055) 285-5611 Fax 055) 286-5610